

좋은사람 좋은세상

Better People Better World

2011.09+10

통권 제107호 (비매품) 등록번호 서울 마 03200 발행일 2011년 9월 5일
 발행인 정만기 편집 정용달 TEL 02-2203-3500(대) FAX 02-2203-1974
 디자인 하나로애드컴(www.hanaroad.com) 인쇄 (주)광진문화
 주소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www.khdi.or.kr)

CoverStory 박춘희 서울 송파구청장

뉴 송파 건설을 위한 4G시대, 소통으로 열어가겠습니다

머릿글 김정진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

9·10월 프로그램

Issue&Seminar

- 1700회 기념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이어령 前 문화부 장관

기획특집 2011 제주 CEO 섬머포럼 지상중계

- 기초강연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

- 스마트경영1 황철중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정책국장

- 스마트경영2 이상철 LGU+ 부회장

- 스마트경영3 박재원 중앙일보 과학기술 대기자

- 스마트경영4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 중국경제대담 후안장 중국 청화대 교수

조순 前 경제부총리

- 환경경영 렉 나가자 UNCCD 사무총장

이돈구 산림청 청장

문국현 뉴패러다임 인스티튜트 대표

- 대토론회1 나가이 카즈유키 일본 주오대 총장

곤노 유리 일본 생활과학연구소 대표

- 대토론회2 김영호 유한대학 총장

이만의 前 환경부 장관

장태평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인문학특강1 공지영 작가

- 인문학특강2 도중환 시인

- 인재경영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 건강강좌 조흥근 연세조흥근내과 원장

- 부동산전략 고종환 RE멤버스 대표

발행인편지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회원&연구원소식

아카데미 뉴스

홍원탁칼럼



표지인물 박춘희 서울 송파구청장 | 사진 오경근 원장





E T R O

미래를 대비하는 자세

어린 시절 그리스, 로마 신화를 참으로 재미있게 읽었다.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에로스 등 인간이 갖지 못한 특별한 초능력을 가진 여러 신들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이야기에 폭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어떤 신은 양(羊)의 머리에 사람 몸을, 또 어떤 존재는 사람의 머리에 말의 몸을 가지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신기했다.

그런데 어린 나이에도 의아했던 점은, 신이라면 번개창으로 수많은 적들을 혼내주는 초능력뿐만 아니라 온화한 성품을 갖거나 사랑의 능력도 무한해야 할 터인데, 이런 점은 잘 보이지 않고 인간과 똑같이 사랑하고 질투하고 다투며 미워하고 싸우는 모습들이었다. 어린 나에게는 도대체 풀리지 않던 의문점이었다.

현대 과학문명의 발전은 참으로 놀랍다. 과거 인류역사 5천 년간 이루어온 발전보다 최근 50년간 이룬 기술문명의 발전이 훨씬 더 위대하다. 이제 전 세계인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실시간으로 전 세계 모든 사람과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손오공이 구름을 타고 이 세상 여기저기를 마음대로 다녔듯, 내비게이션과 결합한 로봇자동차를 타고 음성으로 목적지만 말하면 자동으로 목적지에 데려다 줄 차량이 등장할 것이다. 아라비안나이트에 나오는 '열려라 참깨'라는 주문을 외우면 보물 동굴의 바위 문이 열리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다.

그 뿐인가? 유전자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는 동물에 대해서는 체세포 복제를 자유자재로 해내고 있다. 조만간 쇠고기를 목장 축산업이 아니라 연구실험 공장에서 동물세포를 복제 배양하는 방법으로 얻게 될 것이다. 또 멀지 않은 장래에 영화 <아일랜드>에서와 같이 인간체 세포를 복제한 배양생명체를 만들어 손상된 장기를 이식할 날이 올 것이다.

나노 기술로 만들어진 초소형 치료로봇이 인체에 침투하여 암세포 조직만을 골라내어 파괴해 부작용 없이 암치료를 받게 될 수도 있다. 신화 속 양의 머리에 사람 몸의 형상을 하거나, 사람 머리에 말의 몸을 한 생명체가 탄생할지도 모른다. 생명체의 정형성에 대한 공식(公式)이 깨지는 시대가 목전에 임박한 것이다.

이런 급격한 기술발전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이

다. 첫째, 어떤 기관 조직이던 간에 미래사회에 대비해 조직역량을 과학기술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애플사가 돈을 버는 원리는 극히 단순하다. 경쟁회사보다 단지 1년 앞서 기술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고, 이것을 아름다운 미적 디자인과 결합하여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기술면에서 한발 앞서는 것, 대한민국이 경제적 번성을 이루어 내는 지름길이다.

둘째, 정신세계의 꽃을 피워 내는 것이다. 기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능력에 거의 접근해 가고 있음이 분명하다. 문제는 과학기술 능력이 신들의 모습에 다가가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 신화 속의 신들이 보여준 유치한 모습 즉, 사랑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미워했던 욕망의 노예인 모습 역시 신화속의 신들과 현재의 인간들이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에서 연유한 능력만 발전했을 뿐 우리는 여전히 영혼의 진보까지는 이루지 못하고 있다. 참선, 기도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우리의 정신의식을 진보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높은 기술을 가진 원숭이에 불과할 것이다. **김경진**



● 김경진 변호사

1965년 생으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 법학대학원을 졸업했다. 인천지검, 광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검찰청 연구관, 서울중앙지검 수석 검사, 광주고검 부장검사, 대전지검 부장검사, 광주지검 부장검사 등을 역임했으며, 2008년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다. 2000년에는 전국 최우수검사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9월

매주 목요일 07:00~09:00

■ 나의 삶 '영화 이야기'

제1706회 9월 1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임권택 영화감독

우리는 다양한 점수제를 가지고 있지만 역시 최고의 점수는 100점일 것이다. 더 이상의 점수가 없는 완벽한 점수, 100. 100이라는 숫자를 넘어서 새로운 도전을 향해 101번째 영화를 만든 한국 영화사의 살아있는 전설 임권택 감독. 자신의 청춘과 열정을 담아 만들어낸 영화 101편은 그렇게 완벽한 점수이자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었다.

1950년대 영화계에 입문하여 2011년 현재까지, 나타나고 사라진 수많은 신구 감독들 사이에서 거의 유일하게 '현역'인 임권택 감독은 파격보다는 '독심'으로 험난한 한국현대사를 지켜왔다. 원로가 드문 시대에 여전한 현역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그 존재만으로도 든든하고 뿌듯한 일이다. 그가 걸어온 길, 그의 작품세계를 보면 하나의 한국 영화사가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임권택 감독과 그를 둘러싼 영화인들의 들고 난 흔적들은 영화사의 일부가 되었고, 한국영화 중흥의 토양과 자양분이 되었다. 예술가는 절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임권택 감독이 45년 동안 만들어낸 101편의 영화는 예술가의 책임을 다하려 최선을 다했던 어느 영화감독의 흔적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영화는 삶이고, 삶이 곧 영화'인 임권택 감독을 초빙하여 '사람들'의 삶을 영화에 담으려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와 대화하고 과거를 돌아보며 질문을 던지려는 그의 영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갖는다.



1962년 영화 '두만강아 잘 있거라'로 데뷔 | 88서울올림픽 공식영화 '88서울의 신화' 총감독 | 중앙대 예술대학원 객원교수 | 한국영화연구소 이사장 | 동국대 연극영상학부 겸임교수 |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 | 스크린쿼터 시수 범영화인 비상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 2008년 동서대학교에 '임권택영화예술대학' 설립

<작품> 만다라, 씨받이, 장군의 아들, 서편제, 태백산맥, 축제, 창, 춘향전, 취화선, 천년학외

<상훈> 한국예술평론가협의회 선정 20세기를 빛낸 한국의 예술인, 칸영화제 감독상, 베를린영화제 명예황금곰상, 대중상 감독상, 백상예술대상 감독상, 청룡영화제 감독상, 문화훈장 보관장, 금관문화훈장, 대한민국문화예술상외

■ 미래의학·통합의학의 Mediator의 역할

제1707회 9월 8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최서형 위담한방병원 원장

일제 말기와 6.25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걸쳐 창궐했던 각종 감염병들은 1960년대 들어 진정되기 시작했고, 1970년대 중반부터는 주요 사망원인이 순환기질환, 간장질환, 사고, 암 및 고혈압으로 대체되기 시작하면서 질환 패턴의 변화가 급속히 이루어졌다. 특히 당뇨병과 정신 및 행동장애는 각각 2.5배, 8.3배의 두드러진 증가를 보였고, 서방국가의 으뜸 사인인 허혈성 심질환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짧은 기간 동안 변화의 성격이 외감성질환에서 내인성으로, 급성에서 만성, 악성, 퇴행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백신과 항생제의 개발, 불결한 환경 개선 등의 순작용과 같이 한동안 인간을 괴롭혔던 역질을 퇴치한 의학적 개가의 기쁨을 누릴 틈도 없이 새로운 성격의 환경오염, 식생활 문제, 약물 오남용, 새로운 균의 증식, 평균수명 연장 등의 원인이 차례로 작용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질환이 너무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한계에 이른 서양의학은 동양 의학을 중심으로 단점을 보완하고 대체하려는 시도를 통해 새로운 의학적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양자론의 창시자 중 한 명인 닐스 보어는 '대립적인 것은 상호보완적인 것'이라는 명제를 남겼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위장질환 전문 한방병원인 위담한방병원의 최서형 박사를 초빙하여 동서의학 협력의 필요성과 발전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접근의 시간을 갖는다.



경희대 한의학과 졸업 | 경희대 한의학 석박사 | 경희대 동서의학연구소 교수, 동서의학대학원 겸임교수 | 대전대 내과 주임교수 및 내과과장 | 동국대 한의학과 외래교수 | 연세대 원주의대 외래교수 | 한의학 세계화추진협의회 위원 | 극동방송 운영위원 | 보안대책의학 정책연구회 자문위원 | 통합 암 연구회 회장 | 우리 '힐(의)' 포럼 공동대표 | 생생물팻폼 이사장 | (주)위담 회장

<상훈> 의료부분 신지식인 1호

<저서> 동의간계 내과학, 동의 혈액학, 동의 내과학, 발통의 반란, 담적

■ 북한의 실상과 남북·북중·북일·북러 관계의 미래

제1708회 9월 15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김미덕 일본 다마대학교 교수

동북아시아는 국제관계의 긴장과 경제관계의 확대라는 '커다란 정치와 경제의 모순'을 내재한 채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변수가 되는 것이 북한이다. 현재의 남북관계는 남북교역과 지원 전면중단 등 한국의 대북 강경 대응으로 차갑게 식어있다.

그런 가운데 지난 8월 북러 정상회담 뒤 북한이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다. 과거 수많은 경험 사업들이 합의됐지만 결국 남북관계가 틀어지면서 모두 좌초됐다. 최근 금강산관광 문제로 남북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의 가스관 철도 협력사업 등 우리 정부가 걸려있는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궁금한 시점이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북한도 강경하게 나오고 한반도의 전쟁 위험 수위를 높이며 위협할 것이지만 전쟁은 일으킬 수 없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패배할 것이라곤 걸 가장 잘 아는 곳이 북한"이라며, "한국의 대북지원과 경험 중단으로 북한경제의 중국 종속은 더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던 김미덕 교수는 제일교포 출신이면서 1995년부터 3년간 북한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강의하기도 했던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북한 전문가인 김미덕 교수를 초빙하여 북한의 정확한 실상과 함께 최근 세계의 흐름과 관련하여 남북·북중·북일·북러 관계에 대해 명쾌한 전망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연세대학교 국제경영학 및 국제관계학 박사 수료 |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 및 국가사회과학원 초빙강사 | 미쓰이물산 전략연구소 한국 및 동북아담당 | 미쓰이그룹 한국글로벌경영전략연구위원회 위원 | 일본경제신문 '코리아안 글로벌 컴퍼니' 연재 | 다마(多摩)대 경영정보학부, 대학원 경영정보학과 교수

<상훈> 제1회 외세대문화상, 제1회 뉴스위크 현상논문 우수논문상

■ 일본 재계 최고로 부상한 손정의, 세계를 로그인하다

제1709회 9월 22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노다 가즈오 (재)일본종합연구소 이사장 / 수리(주)Juli&Juli 대표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은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경영자 중 한 명으로 통한다. 그의 성공담은 재일동포들에게 큰 힘이 되었고, 일본사회는 위기 국면을 타개해 줄 주요 인물로 그를 꼽고 있다. 세계적인 경제지 '포브스'는 그를 일본 최고자산가로 선정하기도 했다.

그런 그가 우리에게 더 특별히 다가오는 이유는 재일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외국인 이 성공하기 힘든 일본에서 정상의 자리에 오른 손정의 회장. 그는 미국에서 한 달 만에 고등학교를 졸업할 정도의 엄청난 추진력과 일에 몰두하다가 결혼식에도 늦을 정도의 열정, 그리고 배용준과 엔터테인먼트 기업을 설립할 정도의 강한 도전정신을 갖고 있다. 최근 손 회장의 성공스토리를 다룬 <손정의 세계를 로그인하다>라는 책이 출간되어 화제다. 그의 인생 멘토인 저명한 경제학자 노다 가즈오, 사프 사 고문 사사키 다다시, 간염치료의 권위자 구마다 히로미쓰, 도쿄상공회의소 특별고문 오쿠보 히데오 등 네 명이 회상하는 젊은 시절 손정의의 인상과 인연을 담고 있다. 이들은 무명시절 손정의의 야망과 비전을 꿰뚫어 보고 인연을 맺은 이래 평생 교류를 나누는 은사이자 동료들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손 회장의 멘토로서 일본의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는 노다 가즈오 일본종합연구소 이사장과 이번 책을 출간한 재일 심리학자이자 저술가인 수리 대표를 초빙하여 손정의 회장의 야망과 비전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 | 도쿄대학교 대학원 특별연수생(기업 경영론 전공) | 리코대 교수, 관광학과 초대 학과장 | 美 MIT, 하버드대 '기업 경영의 국제비교' 연구 | (재)일본 종합연구소 초대소장 | (사)뉴비즈니스협의회 초대 이사장 | 다마대 초대학장, 명예학장 | 미야기대 초대학장

다마(多摩)대 경영정보학부, 대학원 경영정보학과 교수

■ 창조적 상상력으로 최초로 도전하자

제1710회 9월 29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시파이어볼룸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 스티브 잡스의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모든 경쟁력 있는 제품과 기술은 창조적 상상력의 산물이다.

우리나라에도 'doing first, something different'의 정신으로 '절망의 끝이 희망의 시작이다. 뒤죽박죽 섞고 크게 흔들면 창조가 일어난다'고 믿고 삶에 통섭을 시도하는 인물이 있다. 3선 의원으로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환 의원이다.

그의 삶의 키워드는 '고통'과 '창조적 상상력'으로 압축된다. 충청도 산간벽지의 중국집 주방장 아들로 태어나 46세에 최연소 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냈다. 대학교 때는 학생운동을 하다가 감옥살이도 했다. 치과의사 출신이지만 재산은 '0'원이다. 그의 인생은 가난이라는 멍에와 낙선이라는 고통이 있었지만 절망 끝에 서있는 그를 희망으로 끌어올린 것은 다름 아닌 창조적 상상력이었다. 과학과 동시를 섞어 동시집을 냈고, 그림과 시, 의료와 미술을 섞기도 했다. 정치인 최초의 1인방송국을 탄생시킨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김영환 의원을 초빙하여 창조적 아이디어시대에 적응하려면 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고, 기업은 창조경영을 어떻게 펼칠지 등 창조적 상상력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들여보는 시간을 갖는다.



연세대 치과대학 졸업 | 연세대 경제대학원 석사 | 제15, 16, 18대 국회의원,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 새천년민주당 대변인,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 과학기술부 장관 | 치과 '이해백는집' 대표위원장

<상훈> 환경운동연합 녹색정치인상,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남녀평등정치인상, 여성생명과학상 공로상, 창조근정훈장

<저서> 시집 - 피라오라 시어, 과학동시집 방귀에 불이 붙을까요?, 돌관저여 흐르는 강물에 갈퀴손을 씻어라, 눈부신 의로움 외
수필집 - 그대를 위한 사랑의 노래, 최초로 도전하라 외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프로그램

매주 목요일 07:00~09:00

■ 자유평등 이념의 형성과 조화

제1711회 10월 6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6층 벨뷰스위트를
송인준 아시아투데이 회장

자유와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이념인 인간존중을 실현하는 핵심적 개념이다. 하지만 자본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미국, 영국과 같이 자유주의에 더 우선권을 두는 나라가 있는 반면 유럽처럼 평등에 더 우선권을 두는 나라도 있다.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냉전시대의 잔재로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절름발이식 자유와 평등이 존재하는 자유민주주의로 흘러오고 있다. 그동안 우리사회에는 노동자, 여성, 장애인, 서민들보다는 대기업의 손을 들어주는 경향이 짙었고, 자칫 평등이념을 강조하게 되면 '빨갱이',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혀 죽음으로 내몰리기도 했다. 이런 가치편향적인 사고는 현재까지도 남아 각 기업, 주택, 교육, 노사, 의료, 언론 등 각 분야에서 자유주의적 입장과 평등주의적 입장이 보수와 진보라는 이름 아래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얼마 전 이슈화됐던 출자총액제한 등 대기업의 지배구조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원리 및 글로벌경쟁시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관점과 재벌독점 방지와 중소기업육성 관계인들의 참여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 그 한 예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아시아투데이 회장이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역임한 송인준 회장을 초빙하여 '자유평등이념의 형성과 조화'를 주제로 양자 간 관계를 어떻게 조화시키고 균형 있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울대 법학과 졸업 | 제10회 사법시험 합격 | 대전지검, 수원지검 부장검사 | 사법연수원 교수 | 광주고검, 대구고검 차장검사 | 대검찰청 강력부장 | 대전지검, 창원지검 검사장 | 대구고검 검사장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아시아위즈덤포럼 이사장 | 사법정책 자문위원 | 중소기업중앙회 법률고문 | 법무법인 에이팩스 고문 변호사

〈상훈〉 홍조근정훈장, 청조근정훈장

〈저서〉 바람 그리고 나무, 겨울 숲 봄빛통로, 이후, 달리기구조사 회 이것이 문제다

■ 대통령 경제학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까지

제1712회 10월 13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이장규 서강대 교수 / 하이트그룹 고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인 동시에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고,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고 있다.

지금 시대에는 무엇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커지면서 국민들은 경제적 리더십을 갖춘 대통령을 바라고 있다. 우리나라 과거 대통령들의 경제적 업적을 보면 이승만 시대에는 자본주의 경제 기틀을 갖추기 위해 통화개혁과 환율정책을 실시했고, 박정희 시대 18년 동안은 강력한 정부주도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포항제철 설립, 경부고속도로 건설, 새마을 운동 등을 추진했다. 전두환 시대에 들어서는 물가안정, 부실정리, 통신혁명 등을 단행했고, 노태우 시대에는 경제민주화를 이루었지만 적자경제로 진입하게 되었다. 김영삼 시대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고, OECD가입을 하였으나 국가부도사태를 맞이했다. 김대중 시대에 들어서는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IT산업에 집중지원을 했고, 노무현 시대에는 분배 우선으로 국토균형개발정책을 추진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이장규 서강대 교수를 초빙하여 이승만 대통령부터 이명박 대통령 시대까지 국민생활과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경제정책의 배경을 들어보고,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 시대별 대통령의 리더십과 경제두뇌들의 활약상을 들여보는 시간을 갖는다.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 | 미 미주리대 신문대학원 수료 | 중앙일보 회장 비서실장 겸 전략기획실장 | 중앙일보 편집국장, 경제전문대기자, 상무 |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대표이사 | 대통령 민경제자문회의 위원 | 한국경제 60년사 자문위원 | 하이트진로그룹 대표이사 부회장 | 아시아연구기금 이사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자문위원

〈저서〉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한국경제 설 땅이 없다, 실록 6공 경제비사, 카스피해 에너지 전쟁, 경제가 민주화를 만났을 때 외

■ 소통과 사회통합

제1713회 10월 20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송석구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장

우리나라는 짧은 기간에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을 거쳐 지금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길목에 서 있다. 그러나 압축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갈등문제가 선진국으로 나아가는데 발목을 잡고 있다.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우리의 선결 과제는 사회의 다양한 갈등을 해소하는 일이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통합이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간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하며, 원활한 소통은 상호 이해와 존중에 바탕한 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는 상대를 배려하는 존중의 대화문화와 인성의 수준이 높지 못한 상황이다. 결국 우리사회 갈등의 최대 원인은 대화와 소통의 부재이다.

송석구 사회통합위원장은 소통과 관련해 '화쟁(和諍) 정신의 뜻'을 되새기자고 주장한다. 화쟁에서 '화(和)'는 조화를 뜻하고, '쟁(諍)'은 말씀 '언(言)' 변을 써서 '다툼을 하되 대화를 통해 토론하는 것'을 뜻하며, 토론은 양극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이 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사회 곳곳의 다양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소통의 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 사회통합위원회의 송석구 위원장을 초빙하여 갈등 해결을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대안 마련 등 우리사회의 갈등 해결 능력을 한 단계 높이고,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통과 사회통합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동국대 철학과 졸업 | 동국대 철학 석박사 | 동국대 철학과 교수, 중앙도서관장, 의료원장, 총장, 명예교수 |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 한국철학회 회장 | 전국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 회장 | 대학총장협의회 회장 | 동덕여대 총장 | 국제신문 사장, 명예회장 | 세종시민관합동위원회 민간위원장 | 가천의과대학대 총장

<상훈> 울곡대상, 일맥문화대상, 청조근정훈장, 동국 청우상, 자랑스런 동국인상 외

<저서> 한국의 유불사상, 지혜의 삶 믿음의 삶, 무상을 넘어서, 바람이 움직이는가 깃발이 움직이는가 외

■ 글로벌 IB은행의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한국금융산업의 나아갈 방향

제1714회 10월 27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김수룡 도이치은행그룹 한국회장 겸 한국대표

미셀 페레티에 소시에테제네랄 기업·투자은행(CIB) 글로벌 대표는 "한국의 은행과 증권사들이 글로벌 투자은행(IB)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대형화도 중요하지만 질적 성장이 동반되어야 한다. 한국은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있어 현자인이나 다국적 문화를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인재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사람이 글로벌 IB 경쟁력의 핵심이고, 한국형 IB 탄생을 위해서는 선진 사례를 적극 받아들이고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인재를 뽑아야 한다는 말이다.

어느 산업이나 그렇듯 금융산업도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인재가 중요하다. 최근 한국 금융계가 다시 한번 글로벌 IB로의 도약을 준비하면서 금융회사들의 인재 확보 경쟁은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 그러나 한국 금융회사들이 제시하는 여건이 글로벌 수준에 미치지 못해 글로벌 IB 전문가 확보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20여 년간 뉴욕 월스트리트에 근무하면서 오늘날의 메릴린치 뉴욕 본사 시장에 오른 김도우 씨와 미셀 방 도이치자산운용 아태 지역 대표, 박장호 모간스탠리 한국지점장 등 한국계 직원 수십 명을 직접 발굴해 유망 국제금융가로 키워내어 월가의 사부로 불리는 김수룡 도이치은행그룹 한국회장을 초빙하여 글로벌 IB은행으로 가기 위한 한국 금융계의 과제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동아대 경영학과 졸업 | 美 펜실베이니아대 와튼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 | 매뉴팩처러즈하노바은행 뉴욕본사 한국대만 심사부장, 회장실 대체투자팀장 | 케이칼은행 투자그룹(홍콩) 아시아본부장 | 체이스맨하탄은행 한국본부장 겸 특수산업IB업무 한국대표 | 금융감독위원회 특별보좌관 | 산업자문부 산하 한국컨설팅협회 (KCA) 회장 | 대통령자문 동북아시아위원회 외국인투자유치위원장 | 재정경제부 경제자유구역 심의위원회 위원 | 도이치은행그룹 아태지역 경영위원 | 한국연식아구연맹 회장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 미공군협회 명예회장

<저서>세계를 감동시킨 CEO 리더십

제1700회 기념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창조는 문화의 인터페이스혁명에서 나온다



축사

김영환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위원장



축사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가 1700회를 이어오는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진행됐다는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았다. 최근 내셔널지오그래픽에 'Lets get Lost(함께 길을 잃을까요)'라는 광고가 나온다. 오늘 아침 그 광고를 다시금 생각한다. '여러분은 길을 잃으셨습니까? 좋습니다. 함께 길을 잃을까요?'라며 여행자에게 질문을 던진다. 사람은 길을 잃을 때 여행의 의미를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뜻이 아닐까 한다.

지난 36년 동안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나아가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역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과 사람의 힘이 국가, 기업, 사회의 원동력이라는 점일 것이다. 사람 중에서도 사회와 기업을 이끌어 가는 리더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정치권에서도 목격하고 있다.

과연 중국의 리더십, 중국의 지도자들보다 한국 지도자들의 역량이 준비되어 있는가? 그것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굉장히 큰 회의를 갖고 있다. 임란 때 류성룡 같은 분이 없었다면 임란의 역사가 어떻게 됐을까? 이순신과 권율을 발탁했고, 임란의 전 과정을 통해서 나라를 구했던 지도자가 없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 스티브 잡스가 없는 애플 컴퓨터를 생각할 수 있을까? 하워드 슬츠가 없는 스타벅스를 생각할 수 있을까?

우리의 인문학적 전통과 역사 속에는 수신과 제가를 함께 하는 경건한 전통이 면면히 흐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자신의 삶 속에서 길을 잃는 방향과 모색의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한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가 앞으로 우리의 길을 제시해주고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키워내는 막중한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가 1700회를 맞았다는 것은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의 대단한 숫자이다. 최근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이대호 선수가 2000루타를 기록해서 굉장하다고 생각했는데,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가지는 모임이 1700회가 됐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다.

인간개발연구원의 모토는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이다. 굉장히 단순한 말이지만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게 하는 말이다. 지난 36년 동안 한국경제가 발전해서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을 이뤘고, 최근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월드컵, 하계올림픽, 동계올림픽을 모두 유치한 세계 5개 국가가 되었다.

경제발전을 이루고 나니까 단순히 경제를 떠나서 어떻게 하면 살기 좋은 국가, 좋은 사람들이 사는 국가가 되는가 하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경영학에서도 경영과 문화의 접목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것이 최근 경영의 새로운 트렌드이다. 이런 측면에서도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들이 단순히 경제발전을 넘어서서 또 다른 차원의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1700회가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1700회에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일들을 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세계 역사상 가장 빠른 시간에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와 같이 경제적으로 성공한 국가가 좋은 사회가 되고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어려운 일도 많았을 것이다. 이런 일들을 이겨내면서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가 이렇게 성대하게 성장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시대의 중심에서 있는 빛

신달자 시인 / 숙명여대 객원교수



자연은 아름다웠다. 사람은 순하고 공손했다
맑게 웃으며 이웃과 밥을 나누고 슬픔을 함께 달래며
땅을 사랑하고 하늘을 두려워하며 땀 흘리며 일했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혼란과 갈등의 시대가 열렸다
아름다움과 순함과 공순, 나누며 사랑하는 부드러운 심성 위에
새로운 인간 건설이 필요했다

인간개발연구원

그것이 36년 그것이 1700회 창조의 힘을 만들어냈다
그것이 오늘 대한민국 인간의 새로운 의지와 개혁을 만들어냈다
땅끝 마을의 소박한 할머니 할아버지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늠하는 인재들의 새벽토론회까지
여명의 빛도 덩실 춤추며 이 땅 싹틔움을 비추며 사람을 변화시켜왔다
낮은 목소리로 고요의 함성으로 담담한 색조의 빛으로
말과 의미와 새 시대의 가치를 만들어왔다
정치를 말하고 문화를 열고 경제를 세우고 환경과 미래를 알아가는
새 시대의 새 길 사람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좋은 사람이 좋은 세상을 만든다고
그래 이래서는 안 된다 변화해야 한다고 새로운 혼의 가치를 만들어
세계에 우뚝 서야한다고 그것이 더 좋은 인간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그래 그래야 한다고 더 강하게 눈을 비비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입이
부르렀다

인간개발연구원

좌절도 있었다. 마음의 문을 확 닫아 버리고 싶기도 했으리라
사람들이 소외된 외로움으로 쓰러져 울더라도 등을 돌리겠다는 단념도 왜 없었
겠는가
그러나 그 사람들을 일으켜야한다고 일으켜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야 한다고
서 있는 곳에서 온 힘을 다해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고
이 시대의 중심에서 있는 빛이 되라고
좋은 사람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정신 하나로 인간을 눈부시게 해야 한다고

대한민국엔 사람만이 큰 가치라고 이 아침에도 조용히 외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이 36년 그것이 1700회 그것이 이 나라의 큰 기둥의 등불로
이 나라를 굳건히 서 있게 한다

우리는 그 정신으로 약속하고 우리는 그 혁신의 창조정신으로
이 아침을 열었다

하늘의 뜻을 사람의 이상과 행복을 나라의 건설을

반세기 수세기를 울타리 넓히며 한을 누그리고

문자의 핵 정신의 핵 세계가 주목하는 인간의 핵을 차분히 쌓아왔으니

굶주린 사람에겐 밥을 눈먼 사람에겐 눈을 무지한 사람에겐 붓을 이성의 판단
을 올바른 희망을 어둠을 밝히는 부정을 정직의 손을 따뜻한 사람의 본성을 키
워 왔느니

몸속 뼈하나 뽑아 붉고 빛나는 이상을 걸어 정신의 근육을 단단히 하는 오늘
도 세계의 중심에 빛으로 눈부시게 새벽의 출발로 나아가느니

인간개발연구원

그것이 36년 그것이 이 가슴 떨리는 1700회

이어령 선생님의 생명자본주의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모두 우리 목에 걸어서 업어주지 않아도 당당히 잘도 걸어가는

좋은 사람 좋은 세상으로

그렇다, 좋은 사람 좋은 세상으로.





주제강연

이여령 중앙일보 고문 / 前 문화부 장관

우리 선조들은 누구나 똑같은 천자문을 읽고 과거시험을 보던 시대를 살았다. 우리는 그동안 천자문을 누가 빨리 외우는지를 경쟁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은 까맣고 땅은 누렇다고 천자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과 땅의 모습이다. 여기에 바로 한국의 문제가 있고 오늘의 문제가 있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인터페이스 혁명

최근 들어 인터페이스의 중요함을 느끼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경제가 인간의 모든 것처럼 이야기한다. 경제도 중요하지만 경제와 문학, 예술, 정치 등 그 사이에 경제보다 중요하고 예술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인터페이스다.

이것을 알고 대박을 낸 사람이 스티브 잡스이다. 스티브 잡스가 한 것은 하드웨어도 소프트웨어도 아니고 기계기술이나 인간기술도 아니다. 그는 인간과 기계, 컴퓨터와 사람 사이를 혁명시켰다.

오늘날 우리가 동양적 가치를 이야기하지만 인터페이스에 대한 말조차 우리에게 없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사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어렸을 적 ‘사이좋게 놀아라’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다. 그러나 ‘사이’가 무슨 말인지 몰랐다. 우리의 윤리는 ‘인간윤리’가 아니라 ‘관계윤리’

다. 부자지간, 형제지간 등 모두가 ‘지간’이다.

이렇게 우리는 동양사회에서 ‘사이’를 존중하며 살아왔다. 서양의 전자, 양자 등으로 분할해서 마지막 남은 객체, 더 이상 쪼개지 못하는 것이 ‘개인’이다. 지금까지는 객체가 있는 줄 알았지만 양자역학에 들어가면 객체가 없다. 관찰자와 나 사이에 일어나는 일일뿐, 양자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로버트 케네디는 “GDP와 GNP는 중요한 것은 다 빼놓고 계산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실제로 사랑하는 여인에게 미소를 지어도, 한 가족이 식탁에 모여 단란한 시간을 보내도 그것이 GDP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반면에 인간을 불행하게 만드는 무기 제조와 판매, 암 환자의 증가는 곧바로 GDP의 증가로 연결된다. 우리는 이러한 경제학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지금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과 인도이다. 그런데 그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나라가 바로 '페이스북'이다. 8억에 육박하는 지구촌 사람들이 페이스북에 가입해 있다. 과거에도 휴대폰과 컴퓨터는 있었다. 그런데 왜 작년부터 스티브 잡스가 만든 휴대폰을 사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일까?

이 세상에는 물리법칙과 생명법칙이 공존한다.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인력을 발견했다'고 가르쳤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지구의 인력은 당시 누구나 알고 있던 상식이였다. 실제 궤체는 뉴턴을 '웃기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사과가 나무 위에 있었기에 떨어진 것인데, 왜 '위에 있는 사과'는 안 보고 '떨어진 사과'만 보느냐고 질타한 것이다. 궤체는 지구의 인력을 거스르면서까지 하늘을 향해 한 치라도 더 높이 올라가려는 사과를 더 신기하게 봐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사과가 떨어진 것은 '물리법칙'이고, 사과가 올라간 것은 '생명법칙'이다. 이 두 법칙의 차이를 읽을 줄 아는 사람과 못 읽는 사람 사이에서도 또 하나의 단층이 생겨날 것이다.

세상을 바꾼 인터페이스 혁명 - 묵은지, 누룽지, 조각보, 컨테이너...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하지만 사람은 죽어도 인류의 역사는 지속된다. 결국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인데, 이러한 색즉시공(色卽是空)의 원리는 절대 물리학 사전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 세상을 바꾼 인터페이스 혁명 사례가 있다.

오늘날의 모든 창조는 내버려둔 곳에서 시작된다. 한국에는 '내버려둬'라는 독특한 말이 있다. 내버리면 내버리는 것이고 두면 두는 것이지 어떻게 내버리면서 두는가.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런데 내버려뒀더니 실제로 새로운 것이 창조됐다. 김치가 삭아서 버려야 하는데, 그냥 두니까 '묵은지'가 됐다. 밥을 짓다가 누르면 '누룽지'가 되는데, 버리는 일본이나 중국과 달리 우리는 그것을 누룽지문화로 승화시켰다. 작은 천 조각을 버리지 않았더니 '조각보'로 변신했다.

이러한 사례는 서구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지금까지 맥주공장은 맥주를 만들고 남은 찌꺼기를 모두 버렸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을 남겨두었다가 버섯을 키우는 재료로 활용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버섯을 키우는 과정에서 쓰레기가 나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것을 가져다가 돼지 사육에 활용했다.

육지와 바다를 연결해준 '컨테이너'도 세상을 바꾼 인터페이스 혁명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육지 입장에서 보면 바다는 교통의 장애물이다. 거꾸로 바다 입장에서 보면 육지가 교통의 장애물이다. 그래서 육지를 달리는 트럭과 바다를 달리는 선박은 별개의 것으로 취급됐다. 물건을 수송하던 트럭이 해안에 이르러 나 몰라라 항만에 부러놓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선박으로 옮겨 싣는 과정에서 물건이 깨지거나 분실되는 일이 많았다. 하역을 하다가 사람이 다치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결국 운송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아무리 가격이 저렴한 물건을 수출해도 현지에도 도착하면 가격이 올라가 무역이 제대로 발달할 수 없었다.

하지만 1930년대 말 콰 맥린이라는 트럭 운전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하나가 모든 상황을 바꿔놓았다. 그는 육상과 해상 수송의 인터페이스를 바꿔주면 수송비도 줄이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고민과 발상에서 출발해 마침내 탄생한 것이 바로 컨테이너였다. 한국이 수출을 통해 비약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칠레산 포도주를 국내에서 쉽게 마실 수 있게 된 것도 사실 컨테이너 때문이다. 인터페이스는 '나와 너'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따로 없다. 그래서 트럭 운전사가 자신이 하고 있던 일의 불편을 해소하려다가 '무역의 총아' 컨테이너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다. 덕분에 해양에 기반한 국가가 함포 하나 쏘지 않고 대륙에 기반한 국가를 한 순간에 추월할 수 있었다. 인터페이스에 대한 관심만 가져도 세상은 달라질 수 있다.

자연과 인간 사이의 '브릿지'를 융합한 인문학적 과학적 상상력 필요

컴퓨터 하드웨어는 급속히 발전했지만 인터페이스는 정체돼 있다. 실제로 컴퓨터와 인간을 이어주는 인터페이스인 키보드는 130년 전에 발명된 것을 아직도 그대로 쓰고 있다. 사실 거의 모든 한국어 문장은 쌍시옷으로 끝난다. 그런데 쌍시옷이 기본 자판에 없기 때문에 항상 시프트키를 눌러야 한다.

영어도 마찬가지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알파벳 A가 자판의 가장 왼쪽에 있어서 평소 가장 적게 사용하는 새끼손가락을 이용한다. 반면, 가장 많이 쓰는 겹지로 영어사전에서 10페이지도 채 안 되는 단어를 갖고 있는 Y를 친다. 인류는 이런 바보짓을 130년 동안 반복해왔는데, 여기에 손을 댄 주인공이 바로 스티브 잡스였다. 지금 인간과 기계 사이를 연구하는 사람, 거기에 눈뜬 사람은 매우 적다.

스티브 잡스가 뜰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트북이나 모바일 기기의 배터리가 10시간 이상 지속된 것도 스티브 잡스의 작품이다. 사람들이 가장 불편해 하고 있는 것을 빨리 포착한 것이다. 나아가 유저 인터페이스를 문자가 아닌 아이콘으로 바꾸는 혁명도 시도했다. 이로써 인터페이스는 문자의 영역에서 벗어나 시각의 영역으로 진입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못 따라갈까? 문화자본의 차이 때문이다. 경제자본시대가 문화자본시대로 넘어가면서 '개천에서 용 났다'라는 말은 더 이상 실현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했다. 신문에서는 우리가 일치단



결해서 유치에 성공했다고 떠들고 있다. 그러나 인문학을 제대로 안다면 그렇게만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평창이란 곳이 어떤 지역인가?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한 송강 정철이 상소문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낮은 짚고 밟은 길다. 여름은 짧고 겨울은 길다. 이런 땅에서 무슨 푸성귀가 나오고 무슨 먹을 것이 나오겠는가'라고 한탄했던 오지 중의 오지이다. 송강은 '너무 딱한 사람이 많으니 세금을 면제하라'고 임금에게 간청하기까지 했다. 그랬던 평창이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길었기 때문이다. 경제자본의 시각에서는 가장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문화자본의 시각에서는 가장 뛰어난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경제논리만으로는 안 된다. 그럼 문화와 경제가 어떻게 만날까? 문화와 경제의 인터페이스는 생일 케이크와 똑같다. 생일 케이크는 먹기 위해서 그리고 축하해주기 위해서 구입한다. 돈 주고 사는 것은 경제행위이지만 케이크에 촛불 켜고 박수 치고 노래하는 것은 문화이다. 모든 생선이 빵공장이 되어 버린 지금, 그 빵에 촛불 켜고 박수 치고 노래를 불러주는 것이 앞으로 오는 생명자본주의이다. 이것을 하는 나라는 살고 그렇지 않고 빵만 파는 나라는 빵공장으로 전락할 것이다.

인간과 자연, 인간과 기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인터페이스에서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자연이 주체가 된다는 말도 아니다. 자연과 인간 사이의 가치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페이스 혁명을 이루려면 자연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서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예전대 모기가 찌를 때 아프지 않은 원리를 활용해 '찔러도 안 아픈 주사바늘'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아이들과 인술린 주사를 맞는 환자들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모기뿐만 아니라 꿀벌에게도 배울 수 있다. 과거에는 벌꿀을 그냥 훔쳐왔다면 이제는 육각형의 벌집이 가장 가볍고 튼튼하다는 원리를 우주항공 발전에 활용해야 한다. 인터페이스는 바로 이런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간만 알아도 안 되고, 자연만 알아도 안 된다. 자연과 인간 사이에 가로놓여 있는 '브릿지'를 융합시킬 수 있는 퓨전, 커넥션, 하이브리드 정신이 필요하다.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적 상상력을 가지고 승부를 걸어야 한다.

강연후담 1



송병준 산업연구원 원장

제품과 기술의 디지털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지만 사용자인 소비자는 아날로그시대 인간의 품성을 지닌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술 자체를 쫓기 보다는 인간과의 인터페이스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우리가 너무 수단적인 가치, 도구에

집착하다보면 원래의 목적적인 가치가 소홀해질 수 있다. 일본제품에 대해 과잉기술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필요 없는 기술까지 나와 있는 것이 일본의 현실이다.

인간과 기계의 인터페이스 면에서 인간의 초점이 흐려지고 기계에 초점이 맞춰지다보니 무인로봇이나 무인비행기 등 죄의식 없이 살상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기술을 중시하는 쪽에서는 이런 기술이 가진 문제점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또 다른 기술을 개발하겠다고 한다. 그에 대해서 이 고문의 말씀은 인문학이나 어떤 생명, 그 목적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면 스티브 잡스와 같은 획기적인, 세상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앞으로 인터페이스 문제에서 불균형을 수정하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문학적 것이나 인간존중, 목적적 가치에 장애가 되는 우리의 약점을 극복해야 한다.

첫째,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순혈주의적이다. 조셉 폴리시 줄리어드대 총장은 30대 후반에 취임해 30년 가까이 총장을 맡고 있지만 학부는 정치학, 국제관계학을 전공했다. 순혈주의에 대해 우리사회가 좀 더 다양성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우리가 지나치게 압축성장, 단기성과 위주로 왔던 것이 모든 것의 원인이 되고 있다. 유행적인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고, 이미 알려진 지식을 가장 빨리 습득하는 과거지향적이었다. 상상지향적이고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시되는 길로 가야 우리가 새로운 국제사회에서 퍼스트 무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행인 것은 공공부문에 비해서 민간부문, 특히 대기업들은 글로벌시장에서 다양성을 존중할 수밖에 없고, 순혈주의를 포기해야 하고, 단기성과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서 인적관리 등에서 훨씬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강연후담 2



오종남 서울대 과학기술혁신과정 주임교수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다. 떡이 아무리 먹음직스러워도 그림속의 떡은 먹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은 괜찮게 보이는 떡 그림 한 장이면 몇 트럭의 떡을 사고도 남는 시대가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 한국은 원시시대와 문명시대 둘 밖에 없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하루에 1달러로 인정받은 것이 1973년이다. 이때를 기점으로 그 이전은 원시시대였고, 이후로 문명시대가 시작되었다. 원시시대와 문명시대를 함께 경험한 세대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고, 1700회 동안 아침 7시에 인간교육을 시킨 인간개발연구원 공이 크다. 결국 인간개발 덕분이다. 1973년 문명시대에 돌입한 2년 후에 인간개발연구원이 설립됐고, 1974년 미국의 경제학자 이스터링이 '경제발전이 인간의 행복을 증진시키는가'라는 논문을 처음으로 발표했다. 이게 행복경제학의 효시다.

결론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나면 경제가 발전한다고 해서 행복이 증진되지는 않는다.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기까지가 1973년까지이고, 그 후 2년 뒤 인간개발연구원은 이제부터는 기본 욕구는 충족됐으니까 다른 것을 함께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시작한 것이다.

결국 그림의 떡이 왜 문화와 산업이 됐는가에 대해 이어령 고문께서 이제 경제자본이 아니고 문화자본시대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림 한 점이 몇 트럭의 떡을 사고도 남을 정도의 시대가 됐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 2만 달러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 고문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는 GDP, GNP에 들어가지 않는 중요한 항목들을 생각하면서 살자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제 2만 달러 소득이면 물질적으로는 그만 하면 됐다 하는 시점이다. 그렇다면 3~4만 달러를 성취하자는 말과 숫자 얘기는 그만 하고 진정으로 문화를 통해서 문화산업을 통해서 한국의 국격을 높이고 품격을 높이는 일이 진정한 선진국의 지름길이라는 말씀으로 이해한다.

클로징 리마크



조순前 경제부총리/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이어령 고문이 천자문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우리의 천자문 교육이 정말 잘못된 교육이었다. 한문이 뭔지도 모르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무조건 '하늘 천 땅 지'를 외쳤던 것이다.

이것과 연관해 조선왕조 500년에 있어 한국의 유교는 정말 잘못된 교육을 했다. 다산 정약용은 <오학론>이란 책을 남겼는데, 내용에 '성리학은 잘못이다. 이것이 한국의 유학을 망쳤다'는 이야기가 있다. 다산은 유학이 잘못이라는 얘기는 한 마디도 하지 않고, 한국 유학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만 했다.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잘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고 대대손손 교육시킨 것이 잘못이었다는 이야기다. 그래서 한국의 유교는 적어도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본다.

오늘 이 고문과 두 분 패널의 발표를 듣고 창조에 대해 생각했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창조는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새로운 것을 착상하는 일이다.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것이 창조이다. 창조는 새로운 기계나 미사일을 만드는 것만이 아니다. 개인과 나라가 제대로 되고 조직이 제대



로 되자면 고정관념을 떨쳐버리는 지혜와 용기가 필요하다.

중국 은나라의 시조로 훌륭한 성인으로 기억되는 탕왕이라는 임금이었다. 탕왕은 자기 세수 대야에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라고 써냈다. '나날이 새롭고 또 나날이 새롭게 하겠다'는 말이다. 새롭게 하겠다는 말은 얼굴을 씻어 좀 더 좋은 얼굴을 만들자는 의미와 함께 나의 생각을 좀 더 새롭게 하자는 의미이다. 그래서 내가 다스리는 백성을 새롭게 만들자는 의미가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시대, 우리나라, 나아가 전 세계에 가장 필요한 것이 창조이다. 고정관념을 탈피해서 자본주의가 물고 온 이 특이한 문명, 이것이 만들어 낸 지속불가능 같은 여러 문제들을 새롭게 만들어야 우리의 자손들이 살 수 있고, 인류가 구제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다.

지금 인류는 큰 과제를 안고 있다. 선진국의 느린 경제회복, 미국의 부도 위험성, 유럽의 재정위기 등을 이야기하지만 이것 역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큰 노력 없이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보니까 해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울곡은 31살에 임금에게 "천하에 대세라고 하는 것은 나가지 않으면 물러가고, 또 국가의 정세라고 하는 것은 다스려지지 않으면 어지러워집니다"라고 말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없다. 시시각각 달라진다. 사람은 세포가 시시각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다. 사회도 마찬가지로 시시각각으로 변한다. 그러니 임금께서 잘 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그것을 잘못 알아들은 선조는 평범한 임금에 머물렀다.

우리나라가 하지 못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울곡이 아무리 새롭게 하고 창조하자고 외쳤지만 선조는 듣지 않았다. 그 후 40년 후에 병자호란이 일어나 임금이 땅에 이마를 9번 조아리고 사죄해 겨우 명맥을 유지했다. 그 후로도 창조는 없었고, 1894년 갑오경장이 일어나면서 일본이 하라는 대로 해서 개혁이 시작됐지만 그것은 진정한 개혁이 아니라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기 위한 전주극에 불과했다. 그리고 나라는 망했다.

창조 없이는 나라가 망한다. 이 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럴 것이고, 미국도 그럴 것이다. 이런 문제가 절실하게 와 닿는 시대가 되었다. **김재**

살기 좋은 송파에서 '더 살기 좋은 송파'로
뉴 송파 건설을 위한 4G시대,
소통으로 열어가겠습니다



사진 · 오경근 원장

“대규모 도시개발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하는 Growing 송파, 수준 높은 생활환경과 복지서비스로 우아하고 위대한 Gracious & Great 송파,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로서의 Green 송파, 희망나눔 사업 등 글로벌 사업을 통해 세계 선진 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Global 송파를 만들어 서울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 자치구가 되겠습니다.”

민선 5기 새로운 구정 방향으로 ‘4G시대’를 선포한 박춘희 송파구청장의 포부다. 이를 위해 출산장려 정책, 미래인재 발굴·육성, 신 친환경 녹색경영 등 3대 전략 브랜드 사업을 선정해 추진 중이다.

부드러운 리더십과 강한 추진력으로 각종 성과를 일구고 있지만 공식 경험이 없는 변호사 출신의 구청장도 취임 초기에는 공식사회에 적응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변호사 생활이 아득해질 정도로 구정에 푹 빠져 눈코 뜰 새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구청장 취임 후 인생에서 가장 많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고 소회하는 그는, 직원과 구민들을 상대로 한 ‘소통행정’을 가장 중요시 여긴다. 그 결과 직원들로부터는 신뢰를, 구민들로부터는 리더십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송파는 제2롯데 슈퍼타워, 동남권 유통단지, 문정동 법조단지, 가락시장 현대화, 위례신도시, 거여마천 뉴타운 사업 등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송파가 새로운 첨단 자족도시의 상징으로 발전할 것을 짐작케 하고 있다. 박 구청장은 각종 개발계획에 ‘송파의 옷’을 입혀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을 우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위적인 보스형 리더십이 아닌 존경받는 섬김형 리더십으로 소통을 통해 창조적인 구정을 펼쳐나가겠다는 박춘희 송파구청장을 만나 지난 1년의 성과와 함께 새로운 도약을 준비 중인 송파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성장 발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 · 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변호사 출신의 구청장으로서 취임 소회가 남달랐을 것 같습니다.

취임 1년을 넘긴 소감부터 말씀해주시죠.

세월이 화살과 같다더니 벌써 1년이 지났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처음 구민들의 부름을 받아 구청장의 직을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정도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낮설고 어색했던 일들이 이렇게 익숙하게 돼, 이제는 그 전의 삶이 아득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도와주시고 응원해주신 직원 한 사람 한 사람, 주민 한 분 한 분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1년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는데, 막상 지나고 나니까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요. 이제는 구청장 직에 완벽하게 적응하고, 구정을 완벽하게 파악했으니 더 창조적이고 세련된 구정을 펼쳐보라는 것 같기도 하고, 더 성숙하게 구정 하나하나를 챙겨야 할 책임감도 느낍니다.



민선 5기 구정을 이끌고 있는 박춘희 송파구청장의 취임선서



아시아 최초로 '글로벌어워드 지속가능 도시상'을 수상한 송파구

민선 5기 들어 달라진 점이나 그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민선 5기 들어 가장 달라진 점이라면 바로 '소통'입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을 만난 1년이었죠. 우리 송파의 캐치프레이즈가 '앞서가는 송파, 당신을 담습니다'입니다. 모든 부문에 있어서 앞서가지만 구민들의 생각을 모두 담아 더 앞서가는 송파를 만들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다. 때문에 공약 사항부터 민원 하나까지 소통을 통해 세심하게 챙기려고 노력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고 했습니다.

고된 만큼 보람도 컸어요. 그렇게 소통하고 조율하고 창의적인 구정을 펼치다보니 자연스럽게 국내외의 평가가 좋게 이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시 인센티브를 가장 많이 받았고, 지난 5월에는 아시아 최초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글로벌어워드도 수상했죠. 그러나 이제는 현재의 성과보다 미래를 생각해야 할 때라고 보고 더욱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는 현재 각종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황과 향후 개발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시죠.

잘 아시다시피 송파에는 제2롯데 슈퍼타워, 동남권 유통단지, 문정동 법조단지, 미래형 업무단지, 가락시장 현대화, 위례신도시, 가락시영 재개발, 거여마천 뉴타운 등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2롯데 슈퍼타워는 벌써 콘크리트 타설공사까지 완료하고 10%대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송파 개발의 축은 송파대로라고 보면 됩니다. 대규모 개발계획 중 대부분이 송파대로변에 집중돼 있어요. 123층의 제2롯데 슈퍼타워는 준공 후 2만 명의 신규 일자리, 150만 명의 관광객이 기대되는 초대형 사업이고, 동남권 유통단지과 미래형 업무단지는 송파를 서울 동남권의 허브로 발돋움시켜 줄 차세대 성장 동력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송파는 새로운 첨단 자족도시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개발 사업에 '송파의 옷'을 입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개발 사업이라도 송파와 어울리지 않고, 송파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 그 개발은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죠.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 현대화 같은 사업은 1단계 사업구역에 지역 주민들을 위한 중규모 이상의 공공도서관 설립을 서울시 농수산물공사에 요청했습니다. 시장과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 특성을 입혀서 주민들의 접근성을 강화한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송파만의 특색을 살린 변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연말까지 60개의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궁금합니다.

현재 송파구의 사회적 기업은 16개에 불과합니다. 송파구 규모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편이죠. 그래서 송파구의 60개 전 부서장이 직접 책임지고 1인 1사회적 기업 발굴 및 결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담 책임관리제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취약계층 180명을 포함해 적어도 500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기대됩니다.

특히 각 부서나 동에서 추진하는 업무 중 장기적으로 영업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수익모델을 개발하고 적합한 운영자를 발굴하려고 합니다. 민간 위탁사업이나 자활사업 등에 참여하는 단체나 기업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고요.

예를 들어 노인 택배, 이주여성 문화체험·통번역, 가사 간병, 문화재 해설사, 제과제빵, 도시벽화사업, 집수리 등 60개 사회적 기업 발굴은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오는 10월 말 경 서울형 사회적 기업 공모를 목표로 사회적 기업 인증을 위한 컨설팅 및 후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내 사업체를 방문해 사회적 기업을 소개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애로사항 청취에도 적극 나설 생각입니다.

사회적 기업 발굴은 일자리 창출효과로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취임 후 일자리 10만 개 창출을 주장하셨는데요. 성과는 어떻게 됩니까.

민선 5기 출범 첫해 목표로 1만 3천 개의 일자리를 공언했고, 점차 늘어나 2014년까지 10만 개의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10만 개는 정규직은 물론 공공근로나 공사 현장의 일용직, 단기 일자리까지를 포함한 수치입니다.

올해 목표는 2만 개 일자리 창출인데요. 올 상반기에만 약 8천 8백 명의 주민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공공근로 같은 공

공분야와 민간 일자리의 취업자, 그리고 창업을 한 1천 2백 명을 합한 수치입니다. 8월 현재 채용시장이 비수기라는 점과 상대적으로 민간부문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지요. 특별한 성과가 있다면 지자체로서는 유일하게 송파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참살이 실습터'로 지정된 일입니다. 네일아티스트, 플로리스트, 커피바리스타 등 3개 분야에 총 120명의 새로운 일꾼을 양성할 수 있는 '참살이 실습터'는 2년간 최대 1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을 취업이나 창업까지 책임지고 연계시킬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취업 관련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사회적 기업 육성 내실화, 창의적 신규 사업의 지속 개발을 통해 주민들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성과를 내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송파구의 새로운 구정 방향으로 '4G시대'를 선포하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민선 5기 출범 1주년을 맞아 직원들과의 정례 조례 자리에서 송파의 '4G 시대'를 선포했습니다. 대규모 도시개발과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성장하는 Growing 송파, 수준 높은 생활환경과 복지서비스로 우아하고 위대한 Gracious & Great 송파, 저탄소 녹색성장도시로서의 Green 송파, 희망나눔 사업 등 글로벌 사업을 통해 세계 선진 도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Global 송파를 만들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 중에서 우아하고 품격 있는 송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형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제가 회의 시간마다 직원들에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는 인사를 권하는데, 이런 것처럼 지역 구성원들이 다 함께 더불어 배려하고, 소통하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품격 높은 도시를 만들자는 것이 우아하고 품격 있는 송파의 참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4G시대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3대 전략적 브랜드 사업으로 '출산장려 정책, 미래인재 발굴·육성, 신 친환경 녹색경영'을 제시했습니다. 앞으로 3대 전략 브랜드 사업을 중심으로 구정을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4G시대를 열기 위한 3대 전략브랜드 사업 중 하나가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라고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해 송파구에서 전국 최초의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한다고 들었습니다.

여성의 생애주기를 보면 정신적 육체적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때가 바로 임신과 출산 직후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산모들이 있다면, 이는 분명 큰 문제죠. 특히 가족들

의 도움이 여의치 않은 산모들에게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렇다고 사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에는 비용이 너무 비싸요. 최하 15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저소득층이나 서민들 입장에서는 엄두도 못 낼 일입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입니다. 산모와 신생아 60명을 돌볼 수 있는 산모건강증진센터를 건립하고, 믿을 수 있는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단순히 산후조리 뿐만이 아닌 다양한 출산장려 프로그램도 운영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성과 신생아의 건강은 물론, 가정의 행복까지 이끌어 낼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 저출산 극복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겠지만, 상징적으로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는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는 현재 장지동에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산후조리원이 아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건강센터가 될 겁니다. 물론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용 대상도 기초생활수급자나 다문화가정 같이 형편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송파 발전을 위한 4G시대를 선포한 박춘희 구청장



박춘희 구청장과 정만기 회장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미래의 국가경쟁력은 인재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인재 발굴 및 육성사업 역시 3대 전략브랜드 사업 중 하나인데요. 현재 시행중인 프로그램 등 구체적인 계획이 궁금합니다.

인재육성은 미래의 가장 큰 가치라는 게 평소의 제 소신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올해 교육지원 예산만큼은 증액해서 64억 원 선을 유지했습니다. 어려운 시절 자식 교육비만큼은 선뜻 짊어짐을 내어 놓던 우리네 어머니들의 마음과 같습니다.

일단 책 읽는 사회 분위기 확산과 저변 확대가 인재육성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동 1도서관 사업이나 책 읽는 마을 사업을 구상하게 됐죠. 1동 1도서관 사업은 현재 15개소에 그치고 있는 관내 도서관을 2014년까지 26개로 증설한다는 계획입니다.

가깝게는 올 하반기 중에 잠실과 신천 빗물펌프장 내 유휴공간에 공공도서관이 들어서요. 특히 신천 빗물펌프장에 개관하는 소나무언덕 잠실나루 도서관은 어린이 전용 영어특화도서관으로 색을 입힐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장지택지개발지구나 가락시장 현대화 1단계 구간에도 중규모 이상의 도서관이 지어질 계획입니다. 또한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 등 인프라를 갖춘 동을 대상으로는 책 읽는 마을을 선포해 장서 확보 등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기도 합니다.

또한 미래의 인재는 실력만큼이나 인성을 갖춰야 합니다.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교양을 갖춘 인재여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죠. 현재 6개 초·중학교에 지원 중인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내년도에는 20개까지 확대 운영하고, 안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다양한 교육인프라 구축,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지원, 명문고 육성 등에도 일정 부분 예산을 투입할 생각입니다.

저희 연구원과 함께 주민들의 평생학습을 돕기 위한 ‘송파아카데미’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만족도나 교육성과는 어떻습니까.



송파아카데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춘희 구청장

교육이 진행되는 것을 살펴보면 평소 만나기 어려운 사회 저명인사라든지 명품 강사들이 많이 나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을 초빙해 다양한 주제로 다양각색의 삶을 공유하고 전문지식을 나눌 수 있는 고품격 프로그램이야말로 우리 수준 높은 주민들에게는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입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도 대단히 높아요. 그래서인지 강좌가 열릴 때마다 4~5백 명이 들어가는 대강당에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해서 발 디딜 틈 없이 빼곡히 들어잡니다.

지난 5월 ‘글로벌 어워드 지속가능 도시상’을 수상했다고 하셨는데, 3대 전략브랜드 사업 중 마지막이신 친환경 녹색경영입니다. 송파구의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프로젝트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요즘 기업이나 산업체에서는 어딜 가나 온실가스 감축을 중심으로 한 녹색경영이 화두입니다. 공공부문 또한 예외가 아니죠. 특히 방대한 예산을 사용하고 또 주민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녹색경영의 의미가 큼니다.

때문에 송파에서는 올해 저탄소 녹색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환경인지 예산제도를 시범 도입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자는 것이죠. 이미 2020년 BAU(배출전망치) 대비 40% 감축이라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는 정부의 30%, 서울시의 33% 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충분히 실현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실효성 있는 정책 아이디어들도 다양한 분야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린에너지 이용확대라던가 빌딩 에너지 효율 향상, 녹색생활 프로그램이나 도시농업 활성화,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운영 및 에코리더 양성, 온실가스 감축 인센티브 지원 등입니다.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도시로서의 모범을 보이겠습니다.

오는 10월 송파에서 ‘리브컴 어워드(Livcom Awards)’가 개최됩니다. 어떤 대회인지 소개해주세요.

리브컴 어워드(Livcom Awards)는 아직 국내에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유엔환경계획이 공인한 국제환경도시대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파구는 지난 2009년 제13회 체코대회에 참가해 우리나라 최초로 ‘살기 좋은 도시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후 두바이, 파리 같은 세계 선진 도시와 경합을 벌여 2011대회를 유치해냈습니다.

송파대회는 오는 10월 27일부터 4박 5일간 잠실 롯데호텔에서 결선이 치러집니다. 예선에 37개국 338개 도시가 참가 신청을 했고, 예심을 거친 80여 개 결선 진출 도시의 시장단이 송파를 찾게 됩니다. 참가도시 측면에서 보면 역대 최대 규모죠.



현장을 중요시하는 박춘희 구청장의 신년맞이 경료당방문



박춘희 구청장은 가끔 직원들과 근처 석촌호수변을 걷는 등 직원과의 소통에 힘쓴다.



현장을 중요시하는 박춘희 구청장의 시장방문

이번 대회 기간 중 대표단 환경리셉션, 각 도시별 우수사례 발표 및 벤치마킹, 부문별 시상식 등 본 행사 외에도 한성백제문화제, 저탄소 녹색미래체험박람회, 도시농업박람회 등의 부대행사를 함께 개최합니다. 대회 개최까지 약 60여 일이 남았는데, 대회 이후에도 세계적인 에코리딩 도시로서 창의적이고 선도적인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취임 이후 소통을 중요시 하시면서 ‘소통행정’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데요. 구청장님의 리더십 방향이 잘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학택지사(濶澤之蛇)’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비자(韓非子)>에 나오는 고사인데, 물이 마른 연못에 사는 뱀들이 작은 뱀의 아이디어로 서로의 꼬리를 물고 큰 뱀이 작은 뱀을 삼키는 모양을 한 채 다른 연못으로 옮겨가 사람들로 부터 화를 면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권위적인 보스형 리더십보다 존경을 자아내는 섬김형 리더십이 각광받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공직사회는 상하간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유연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에요. 관이 먼저, 상급자가 먼저 권위의식을 버리고, 마음을 열어 소통의 물꼬를 트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노력했더니 머지않아 바로 피드백이 왔습니다. 주민들의 경우에는 구정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스낵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늘렸습니다. 구청에서 주관하는 행사 또한 지나치게 많은 축사나 대회사 같은 것을 없애고, 앞자리를 주요 인사들에게 할애하던 것을 주민들의 몫으로 돌렸어요. 물론 주민들도 상당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구청 내부적으로도 기존에 간부들만 모여서 진행했던 간부회의를 일반 직원들도 참관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회의 때마다 서로 “사랑합니다”고 인사하면서 딱딱해진 분위기를 풀려고 노력합니다. 직원들과는 자주 점심식사도 하고, 가까운 석촌호수변도 함께 돌면서 다양한 얘기를 들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4년 후 구청장님이 꿈꾸시는 송파의 모습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송파의 모습은 ‘모든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부모나 자식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고, 이웃 간의 배려가 넘치는 도시’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에서 ‘더 살기 좋은 도시’로의 발전을 꾀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기를 마친 후에는 ‘누구보다도 청렴하고, 정직하고, 친서민적이고, 겸손한 구청장이었다’, ‘힘든 이웃을 배려하고 약속을 성실히 지키려고 애쓴 구청장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이 올해로 창립 36주년을 맞았습니다. 36년간 조찬세미나를 개최하며 CEO의 학습문화 조성, 전국 지자체 및 기업, 공공기관 아카데미 교육으로 평생학습의 장을 마련해온 인간개발 연구원에 대한 평가와 제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의 창립 3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평생교육이라는 콘텐츠는 더 좋은 사람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앞으로도 사업 각 분야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에서 저변 확대에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인간개발연구원의 신념과 비전을 통해 아름다운 인간중심의 사회가 구현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바쁘신 중에 장시간 동안 좋은 말씀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더욱 큰 발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1 2011 JEJU



2



3



4

- 1 개회사 하고 있는 장만기 회장
- 2 인사말 하고 있는 윤계섭 회장
- 3 2011 제주CEO섬머포럼 세미나장 전경
- 4 2011 제주 CEO 섬머포럼 기념촬영
- 5, 6 8월 3일 포럼 참석을 위해 호텔로 들어서고 있는 참가자들
- 7, 8 8월 3일 환영만찬에서 건배제의
- 9, 10, 11, 12 8월 5일 환영만찬장에 모인 참가자들
- 13, 14, 15, 16, 17, 18, 19, 20 강연을 경청하고 있는 참가자들



9



10



13



14



15



16



17



18

세계경제의 진화와 신아시아경제의 메가트렌드

CEO, 세상을 움직이는 마에스트로
창조적 영감과 마르지 않는 열정을 지휘하라

올해로 29회를 맞은 '제주 CEO 섬머포럼'이 8월 3일부터 6일까지 제주 롯데호텔에서 350여 명의 참가자들이 함께 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2011 제주 CEO 섬머포럼은 36년간 인간중심의 조직문화를 목표로 경영자, 공무원, 시민들을 교육해 온 인간개발연구원(회장 장만기)과 24년간 경제금융 대표 기업들을 이끌어온 서울이코노미스트클럽(회장 윤계섭)이 공동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포럼은 인간중심의 새로운 시선에서 경영의 지혜와 성장의 동력을 발견하는 시간을 모색해보고자 "세계경제의 진화와 신아시아경제의 메가트렌드"를 주제로 정하고 'CEO, 세상을 움직이는 마에스트로, 창조적 영감과 마르지 않는 열정을 지휘하라'를 슬로건으로 정했습니다.

포럼에는 조순 前 경제부총리, 이상철 LGU+ 부회장,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 김영호 유한대학 총장, 이만의 前 환경부 장관, 장태평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문국현 뉴패러다임 인스티튜트 대표, 광재원 중앙일보 대기자, 황철중 방승통신위원회 국장, 후안강 중국 청화대 교수, 나가이 카즈유키 일본 주오대 총장, 곤노 유리 일본 생활과학연구소 대표, 룩 나가자 UNCCD 사무총장, 조벽 동국대 석좌교수, 공지영 작가, 도종환 시인 등이 연사로 참여해 새로운 G2시대 창조적 진화를 꿈꾸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순조로운 도전과 100년 기업으로 가는 희망의 향해를 다양한 분야의 멘토와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조흥근 연세조흥근 내과 원장의 건강강좌와 고종완 RE멤버스 대표의 부동산전략 특강을 통해 경영자들은 물론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본지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토론의 장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 속에 성료한 '2011 제주 CEO 섬머포럼'의 주요 내용을 기획특집으로 지상중계합니다.

글·정용달 팀장 / 사진·인간개발연구원





21



22



23



24



25



26



28



27

- 21, 22 환영만찬에서 레크리에이션 시간
- 23 오은영 미술사의 미술공연
- 24 노엘라의 퓨전콘서트
- 25, 26 섬머포럼 골프대회
- 27 섬머포럼 골프대회 시상식
- 28 가족 문화프로그램
- 29, 30, 31, 32 사려니숲길 트레킹



29



30



31



32

기조강연

은하도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담긴 한국의 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계의 주도권은 유럽에서 미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아시아로 옮겨오고 있다. 중국과 미국이 세계의 리더가 되었다. 15세기 문명국이었던 나라는 중국과 아랍권이었을 것이다. 그 후 유럽으로 문명의 주도권이 옮겨갔다는 것을 생각해볼 때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다.

기초과학이 없으면 산업화가 이루어 질 수 없다. 우리는 응용과학 분야는 굉장히 발달했지만 장기간 노력해야 하는 기초과학 분야는 상당히 부족하다. ‘빨리빨리’ 정신은 강한 반면 장기간의 노력은 아직도 부족한 것이 많다.

1995년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R&D 예산이 거의 5배가 늘었지만 아직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다. 그것은 바로 지적자극을 받을 환경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식혁명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지식경제시대이다.

중요한 것은 정보와 지식보다 생각하는 능력이다. 사고력을 길러야 한다. 그것이 자극이 풍부한 환경이 필요한 이유다. 세계에서 좋은 아이디어로 좋은 논문을 만들어내는 국가들을 비교해보면 일본은 미국의 1/9이고, 우리는 일본의 1/9이다. 미국에 비해 1/80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바로 자극이 문제이다.

우리도 변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생각하게 된 것이다. 이성적인 과학과 감성적인 예술도 서로가 융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과 비즈니스도 거리가 멀다. 과학은 방법론을 중요시하고 비즈니스는 결과를 중요시한다. 과학은 공개하고 공유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비즈니스는 비밀을 지키고 그 속에서 수익을 따져야 한다. 과학은 타당성을 따지고 비즈니스는 실용성을 따진다. 그래서 성과평가에도 과학은 영향력을 따지는데 비해 비즈니스는 재무적인 성과를 따진다.

과학과 예술이 다른 것만큼이나 과학과 비즈니스가 다르다. 그럼에도 둘이 합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질적인 것들이 만났을 때 더 강한 힘을 낼 수도 있다. 결국 접촉과 대화, 소통으로 가능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까지 우리 과학의 환경은 그렇지 못했다.

좋은 과학자를 모으려면 소통과 대화가 규범이고, 통속과 융화가 문화인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생활적인 면으로는 안정적이지만 지적인 자극이 있어야 하고, 그 속에 자율성이 있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률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란 누군가 먼저 지식이나 기술을 빨리 선점해서 그 분야를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것이다. 과학은 모든 것이 증명될 때까지 증명 과정을 거친다. 증명이 다 끝나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된다. 그러나 그때는 재화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증명이 끝나기 전에 비즈니스화 시켜야 한다.

과학이 더 이상 일반인의 상식에 파고들지 못하고 각 분야마다 전문화되다보니 아주 국한된 한 분야의 국지적인 언어만 발달하게 되었다. 언어가 서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상호간의 지식이 교류되지 못한 점이 많았고,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한계에 와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기업인은 경제학 언어에는 익숙하지만 수학이나 물리학적 표현에는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학자들도 기업인의 언어에 익숙하지 않다. 지식이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각 분야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다른 분야의 지식이 도움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런 시도가 없었다. 다른 분야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어찌면 매우 간단하게 문제를 판단하고 해결할 수도 있다.

21세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통섭과 융합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술가이면서 과학자였다. 이성과 감성은 계속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데, 21세기에 굉장히 떨어져있다고 느끼는 것은 불행이다.

이성과 감성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성과 감성의 경계를 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인터페이스가 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분야가 이룩한 언어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 전문화 되어있는 언어를 정리하고 지식을 대중화하여 일반인의 과학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과학 관련 논의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졌을 때 미래 지식사회를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

스마트경영1

미래 네트워크 사회를 향한 새로운 ICT 혁명



나는 별나라에 산다. 아이패드에 빠져서 자나 깨나 아이패드를 끼고 산다. 아이패드를 들고 다니는 것이 나에게서 사이버 세상, 별나라이고 그 별나라를 체험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은 1983년 초부터 모토로라에서 처음 만들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던 2007년 6월, 애플이 아이폰을 출시해 현재 아이폰4까지 나왔고, 그 와중에 태블릿PC라고 불리는 아이패드(iPad)를 출시하면서 전 세계 PC, 휴대폰, 태블릿PC 시장을 휩쓸고 있다.

노키아는 시장점유율 40%를 자랑하는 핀란드의 이동통신회사이지만 지금은 점유율이 20%도 안 된다. 올해 2/4분기를 기점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에게 밀렸다. 판매량은 애플과 삼성이 비슷하지만 마진율은 애플이 훨씬 높다. 이것은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아이팟, 아이패드를 포함한 모든 모바일 기반에서의 오피레이팅 점유율이다. 전 세계 2억 2천만 대 이상의 장비들이 애플의 IOS를 기반으로 해서 돌아간다. 모든 인터넷 비즈니스의 출발점이자 종착점은 광고시장이다. 옥션이나 G마켓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벌어들이는 수입은 거래수수료 외에 45%가 광고수입이다. 물건이 안 팔리면 나머지는 광고를 채워서 상인들에게 광고비를 받는다. 그래서 광고모델을 인터넷 비즈니스로 성립시키지 못하면 생존하기가 어렵다.

인터넷 비즈니스에서 광고를 끌어오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의 행태를 분석하는 가장 좋은 툴이 산재해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서는 어떤 형태의 광고도 누가 들어가서 몇 분 동안 보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페이스북 가입자는 7억 5천만 명인데, 페이스북 가입자들은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페이스북에 다 올린다. 그래서 광고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이다.

별나라에서 현재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인터넷을 쓰고 있다. 인터넷상의 데이터가 2000년부터 2007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별나라의 삶을 주도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기술'이다. 그 중에서도 지능적인 영역을 다루는 기술에 소홀해서는 웹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경쟁력을 갖

추기 어렵다.

정보기술은 정보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디지털이 얼마나 중요한가. 웹 세상의 기초 단위는 결국 디지털이다. 디지털로 전환될 수 없는 모든 것은 사라지고 있다. 정보를 처리하고 전송하는 방법이 패킷(Packet)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이 30~40년이다. 패킷은 공유의 개념이다. 이제 이 패킷이 네트워크의 확장, 인터넷 영역 확장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변화가 되는 것이다.

기업을 운영하면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리더십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디지털과 패킷기술이 가져오는 ICT기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ICT 기술을 제대로 이해해야 디지털 사회를 이해하는 출발점이 된다. 인터넷망이 오픈되면서 하나둘 사업이 생겨나서 e-commerce안에 G마켓, 옥션 등의 포털들이 생겨나게 되고, 미국의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이 나타는 것이다. 망 개방의 역사가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온 것이다.

디지털로 전환될 수 있는 모든 것은 디지털로 전환되어야 한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로 대체되는 것은 디지털과 패킷이라고 하는 기술 인프라 때문에 바뀌는 것이다. 기존 생태계를 버리고 새로운 생태계로 바뀌고 있다. 이런 에코시스템의 궁극적 지향점은 플랫폼화되는 것이다. 플랫폼은 사람이 모이게 하는 것이고, 사람이 모이면 재미가 있고 이벤트가 있고 거래가 일어난다. 거래가 일어나면 궁극적으로 돈 버는 일이 발생한다.

스마트 생태계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은 네트워크이다. 모든 것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디지털이나 웹기반의 새로운 산업정책이 만들어져야하는 시점에 와있다고 하는 것이다. 소셜네트워크에 대해 많이 느끼고 별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 많이 체험해보시길 바란다. **KHDI**

이상철 LGU+ 부회장

스마트경영2

새로운 성장동력, 스마트 영역에서 찾아라



스마트폰시대를 맞아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뿐만 아니라 앱스토어를 통해 자유롭게 콘텐츠를 찾아 사용하게 되었다. 즉, 통신사업자의 영역이 축소되었으며 이로 인해 이익수단도 많이 줄어들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네트워크의 부하도 늘고 있다. 특정 전송로 상에서 일정 시간 내에 흐르는 데이터의 양을 뜻하는 트래픽은 진성트래픽과 가상트래픽으로 나뉜다. 진성트래픽은 고객이 원하여 사용되는 정보의 이동량을 뜻하고, 가상트래픽은 고객과 상관없이 단말기와 제조사가 주고받는 신호이다. 이 가상트래픽이 전체 신호의 70%를 넘어서면 네트워크에 과부하가 걸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트래픽이 증가해도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고 불필요한 가상트래픽을 줄이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인생에는 굴곡이 있고, 이는 S형 커브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기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과거 자동차시장에서 도요타를 최고라 말했고, 쉐윌치를 경영계의 구루라고 표현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는 더 이상 진실이 아니게 되었다. 이렇듯 시대는 변화하고 있으며 능력있는 CEO는 기업이 S형 커브의 최고점에 있을 때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S형 커브로 점프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하면 내리막을 내려올 수밖에 없다.

태풍의 풍속이 50m/s라고 가정하면 1시간에 180km를 이동해야 하지만 실제로 태풍의 이동속도는 이보다 느리다. 태풍의 풍속이란 태풍의 눈을 중심으로 바람이 이동하는 속도일 뿐 실제 태풍의 이동속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CEO가 변화를 모색할 때는 50m/s의 바람 속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 바로 태풍의 눈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모바일시대이자 스마트시대, 네트워크시대이다. 이 시대에서 적절한 태풍의 눈을 찾는 것이 바로 성공의 열쇠이다. 1985년 카폰으로 대표되는 1G가 시작되었고, 1996년 2G 서비스가 시작됐으며 CDMA 기술의 PCS폰이 탄생했다. 2006년 통화와 문자메시지에 데이터통신이 추가된 3G 서비스가 시작되었고, 올해 7월 1일 LTE로 대표되는 4G의 시대가 열렸다.

이전 통신방식과 4G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속도이다. 3G망에서는 다운로드 14Mbyte/s, 업링크 6Mbyte/s의 속도인데, 4G 와이브로는 37Mbyte/s, LTE는 74Mbyte/s로 1996년 64kbyte/s에 비해 1,000배 빨라졌으며, 향후 1년 반 뒤에는 1Gbyte/s로 현재보다 10배 이상 빨라질 것이다.

이런 속도의 변화는 영상이 음성을 대체하게 만들어 멀티미디어시대를 열었다. 이 시대에는 모바일 단말기로 각종 결제서비스와 검색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유비쿼터스 환경으로 진화하고 있다. 결국 4G로 인해 지금까지 불가능하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스마트웨이, 더욱 편리한 시대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바로 이 변화 속에 비즈니스 기회가 자리하고 있다.

이제는 집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교육 및 의료상담,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고 각종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타인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 혼자 길을 걷더라도 절대 혼자가 아닌 시대이다. SNS를 통해 전 세계 5억 명과 연결되어 있는 셈이다. 스마트폰은 단순 통신기기가 아닌 소셜기기가 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네트워크에도 비즈니스 기회가 있다.

이 시대에는 스마트, 모바일, 네트워크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비즈니스 기회를 찾아야 한다. 그 서비스의 방향은 Personality와 Convergence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개개인의 고객에 대해 알고 이를 기반으로 그 고객에게 적합한 다양한 요소가 융합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사람이 말미를 하는 이유는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전수는 절대 말미를 하지 않는다.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말미하지 않고 성공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주인공이 되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주인공이 되어 스스로에게 충실할 때 리더십은 최고조로 발휘되며, 이 리더십은 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김미**

스마트경영3

스마트 경영혁명과 과학기술



모든 것은 인과관계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엄청난 인과관계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 하나하나를 규명하는 것이 너무 어려울 정도로 우리는 불확실성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변화의 시대는 이성의 한계가 완전히 봉착된 시대이다. 이를 3분의 시대로 규정해봤다.

첫째, 불가능성이다. 우리는 지식 또는 지혜의 한계에 와 있다. 둘째, 우리는 참과 거짓을 구별하기 어려운 논리의 한계에 봉착한 불안정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셋째, 물질의 움직임 및 힘을 파악하려할 때, 힘을 파악하게 되면 위치가 파악이 안 되고 위치가 파악되면 힘, 운동량이 파악이 안 되는 불확정성의 원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3분의 원리가 지금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 인간이 과학기술을 통해 여기까지라고 한계를 짓고 그 이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신화는 현재 다 깨지고 있다. 공간의 혁명, 공간의 파괴를 가지고 오는 점, 선, 면, 공간으로 이어지는 영향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얼마만큼 준비되어 왔는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지금은 패러다임 전체가 바뀌고 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고 있다. 그 변화야말로 패러다임시프트이다. 어제의 승자가 내일의 패자로 전락, 혹은 추락하거나 내일의 패자가 어느 순간 갑자기 승자로 올라서게 되는 급변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스마트경영의 원류는 정치사회학에서 나온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15년 전, 소프트웨어시대라며 소프트웨어를 주장했다. 미국과 여타 국가

가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원인을 하드파워로 표상되는 군사력, 경제력이 아닌 각 국가 간의 네트워크와 협력, 문화체제, 국민들의 인식 구조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민주주의는 소프트파워가 있지만 공산주의는 소프트파워를 키우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소프트파워만으로는 부족하다. 국가경쟁력이 아닌 문화적 접근, 사회적 자산, 기업들의 책임의식 등을 종합한 국가력을 키워야 된다. 그것을 갖는 것이야말로 스마트파워이다. 소프트파워에서 스마트파워로 가기 위해서는 스토리가 있어야 한다. 스토리가 들어가야 스마트파워가 된다고 조지프 나이 교수는 말한다.

시스코(Cisco Systems)의 존 챔버스 회장은 지금의 판이 바뀐 스마트경영을 스피드라 표현했으며, GE의 제프리 이멜트 회장은 리셋의 시대로 정의하며 모든 자원을 매트릭스적으로 쪼개어 전체적으로 다시 리셋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리셋이나 새로운 스피드한 것을 만들어야 한다.

인천에서 1000km 이내의 동심원을 그린 한국지도를 보자. 비행기로 한 시간 반 정도 이내로 어느 국가든 갈 수 있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인구는 세계인구의 6%가 넘고, GDP는 4~5%가 넘고, 무역은 세계의 1할을 넘어가고 있다. 이 경제가 합해지면 엄청난 규모의 경제권을 갖는 것이다. 물론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대연방 한국'은 무슨 생각을 가져야하고 기업은 무슨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고민해봐야 한다.

앞으로는 스마트경영을 테크닉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글로벌이라는 공간경제학까지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스마트경영에 접근해야 한다. 이 시대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오피니언 리더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공간경영, 공간경제학이다. **박재원**



스마트경영4

스마트금융 시대의 선도 전략



1999년 6월 29일, 매일경제에 '사이버대전 선발주자 신한은행'이라는 기사가 실렸었다. 당시 인터넷뱅킹의 선발주자로 신한은행을 소개했는데, 이렇듯 인터넷뱅킹이 이슈가 된 것이 불과 12년 전이다.

2011년 6월 기준, 신한은행 전체거래 내용을 분석해보면 인터넷 거래 건수는 전체 거래의 46.2%이다. 그리고 CD기, ATM기를 이용하는 고객이 45.6%이다. 결국 영업점 창구를 직접 방문하는 고객은 전체 거래 건수의 8.2%에 불과하다. 인터넷뱅킹이나 비대면 거래를 위한 초기의 발 빠른 대비 결정 등의 경영효율성은 오늘날 신한금융그룹 경영 초석에 큰 밑바탕이 되고 있다.

스마트시대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진척되고 있다. 2010년 12월, 스마트뱅킹의 거래비중은 1.9%였으나 불과 6개월 만에 4.3%로 늘었고, 증가율은 128%에 다다른다. 지금 새로운 물결이 오고 있다. 인터넷이 금융산업에 정복되며 많은 변화를 제시했고, 그 변화를 보여주었다.

스마트시대는 그 때보다 더 큰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스마트의 사전적 의미는 '현명하다, 똑똑하다' 두 마디로 정의되는 형용사이다. 하지만 실제 의미는 기기가 사람을 대신하여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그 동작을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필요한 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스마트기기가 하는 역할이다. 스마트폰은 어떠한 정보라도 그 자리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한 즉시성을 제공한다.

미래 스마트환경에서의 금융거래방식은 모바일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기존에 있던 대면채널과 기술을 이용한 비대면채널의 상호 시너지가 커지면서 업무효율성도 매우 높아질 것이다.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상거래 방식도 혁신적인 변동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금이 없는 사회, 캐시리스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물론 여기에 사용되는 기술은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무선통신기술이다.

우리나라의 인구를 약 5천만으로 가정했을 때, 2%인 100만 명이 사용한다면 그것은 패션이 된다. 패션은 있다가도 사라질 수 있는 형태이다. 10%인 500만 명 정도가 사용한다면 트렌드가 되고, 20%가 사용하면 문화로 인식한다.

스마트폰은 1500만 대를 넘어 올해 2000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마트폰이 지배적인 스마트시대가 되면 경쟁력 있는 서비스나 차별화된 상품을 가지고 고객과의 접점을 확보해야만 한다. 그렇지 못한다면 기업 존재에 상당한 위험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무한경쟁시대에는 고객에게 선택권이 있다. 고객의 선택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고객이 기대하는 그 이상의 가치를 그룹차원에서 융복합성, 시너지, 컨버전스를 통해 제공해주지 못한다면 생존 기반이 위협받을 수 있다.

스마트시대가 되어도 변하지 않는 가치들은 존재할 것이다. 금융기관은 고객의 신뢰를 먹고살며, 고객의 신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스마트금융은 일회성으로 그칠 것이 아니다. 그것이 문화로 정착될 때, 그것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과거의 관리나 운영 위주에서 창조적, 기획적으로 바뀌어야 하며,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알리는 기능에서 실질적인 금융컨설턴트로 거듭나야 한다.

모든 스마트금융이 앞서가도 실제 변하지 않는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항상 고객과의 '동행'이라 생각한다. 신한금융그룹은 미래의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스마트금융시대에도 기본에 충실할 것이고, 고객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고객과 함께 행복할 것이다. ■■■■

중국경제대담

세계경제의 메가트렌드와 중국경제의 아시아화

<발제1> 후안강(胡鞍綱) 중국 청화대 교수



근대의 경제 역사를 세 단계로 나누면 첫 번째는 2차 세계대전 이후인 1945~1973년, 두 번째는 1973~1990년, 세 번째는 1990~2030년까지로 볼 수 있다. 연간 경제성장률 3.5%를 보인 황금기의 고성장은 경제자원(GDP, Capital, Labor, Human Capital, Total Factor Productivity)에 의해서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산업구조 또한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1960년대 농업은 8.8%에서 2.1%로, 제조업은 29.0%에서 11.2%로 급감한 반면, 서비스산업은 53%에서 77.9%로 급격히 증가하는 변화 추세를 보이며 집중화될 것이다.

중국 정부 또한 제조업에서 서비스산업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인도가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늘어날 것이며, 아주 급속하게 이머징마켓이 될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중국은 전 세계, 아시아 국가, 특히 한국과 일본에게는 제1의 시장이 될 것이다. 전 세계 무역시장에서 중국, 인도, 러시아, 브라질, 아시아 개발도상국 등 남쪽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연구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남쪽 국가들이 점차 도시화되면서 전 세계 도시인구가 2030년에는 약 81.8%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 중에서 중국은 22.9%를 차지하게 될 것이며, 이는 미국 인구의 3배

에 달한다. 남쪽 국가들은 북쪽 국가들을 아주 빠르게 따라 잡을 것이다. 중국은 2030년에 북쪽 국가 GDP의 85.7%, 인도는 43.6%까지 따라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학계가 바라보는 미래 메가트렌드, 핵심 키워드는 세계의 '대동(大同)'이다. 핵심키워드로 세계의 '대동'을 든 이유는 '동일한 이해와 동일한 운명체, 지구온난화 등에 대한 동일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기에 공동의 부와 번영이 전 세계의 '대동'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미래 경제적 위상을 살펴보면, 2011~2030년까지 7~8%의 고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예견되며, 2030년까지 미국의 2~2.2배 규모로 세계 경제대국의 위상을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세계 경제를 주도할 수 있는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소비시장(2030년까지 미국의 1.7~1.9배)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경제규모와 소비시장의 급팽창으로 2030년까지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포춘지 500대 기업'의 상위권을 차지할 것이다. 2000년에 11개, 2011년에는 69개 기업이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경제발전과 더불어 고급 인재에 대한 투자와 개발이 병행되고 있다. 2040년까지 세계 최고 인재개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다. HDI(Human Development Indicator) 기준으로 중국이 2000년 0.5, 2010년 0.6, 2030년에는 0.776이다. 반면 미국은 2000년 0.893, 2010년 0.902, 2030년 0.926으로 중국과의 격차가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을 UNDP, 2010 자료에서 볼 수 있다.

인재개발수준(HDI)과 더불어 인구를 고려한 생산성 지표인 GHDI(Growth Human Development Indicator) 역시 국가의 진정한 부의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라고 할 수 있다. GHDI 측면에서도 중국은 2000년 7.2, 2010년 8.91, 2030년 10.84인 반면, 미국은 2000년 2.52, 2010년 2.80, 2030년 3.35 수준으로 예측된다.

결론적으로 오늘 사회적 공공의 부와 세계의 '대동'을 역설하고 싶다. 중국의 인구는 2030년까지 10억에 이를 것이며, 전 세계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새로운 경제 지표를 보여줄 것이다. 경제대국으로서의

부와 더불어 높은 수준의 인력개발 국가로 발전할 것이며, 이러한 경제 성장에서도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책임에 대해서 말하고 싶으며, 중국은 향후 세계의 경제발전을 위한 책임을 공감하고 또 공헌할 것이다.

〈발제2〉 조순 前 경제부총리,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세계는 대전환기 속에 처해 있다. 어느 때나 마찬가지겠지만 지금은 특수한 전환기이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되고 이노베이션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 국가경영 면에서도 마찬가지이고 미국, 일본, 영국, 중국도 이노베이션을 해야만 한다.

선진국들의 경제적인 성과 GDP가 완만한 반면 후진국들은 상당한 발전을 하고 있다. 선진국의 성장이 느린 것은 힘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자신을 잃고, 낙관을 잃었다. 특히 미국은 가계부채 소비에 활기가 없고, 중산층 이하에서 수입과 소득이 없다. 민간부문의 중요한 섹터에 기업부문의 투자가 부진하다. 정부섹터는 지출을 활발히 못한다. 국민 경제를 위한 비전이 없다. 당분간 정부부문의 지출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정치, 정당, 사회 모든 부문에서 쓸데없는 경쟁으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사회 전반에 협력과 이해가 없다.

영국은 긴축을 크게 할 작정을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이다. 독일과 프랑스가 그나마 좋아 보이고 나머지는 낙제점수이다. 정부 빚이 너무 많고 과거에 능력이상의 소비를 많이 했다. 유럽도 몇 개 국가를 빼고는 전망이 어둡다. 최대 선진국들은 평균 3% 성장률을 기록하기 어렵다. 2%는 성장이 아닌 제자리걸음이다. 금년 1/4분기에 1%가 안 되고, 2/4분기는 1.3% 정도이다.

후진국은 활기가 있고 전망도 좋다. 중국은 사회불안도 많고 문제도 많지만 전반적으로 긴 역사 흐름으로 볼 때 낙관적이다. 인도는 중국 다음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1991년부터 개방정책을 정했다. 상당한 성과

를 보이긴 하지만 선진국과 비슷한 양상이 일어나고 있다. 브라질은 좀 나은 편이다. 러시아도 신통치 않다. 그러나 남아공, 터키 등을 비롯해 선진국보다는 좋은 편이다.

세계의 경제운영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억지로 거부하면 몰락한다. 정부가 국민경제를 선두에서 지휘할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금융위기는 소위 자유방임정책을 종교처럼 믿다가 일어난 것이다. 경제정책과 이론은 시대를 따라가야 한다. 경제에 절대적 진리는 없다. 지금은 정부가 제대로 안 하고 민간에 맡겨두면 절대로 안 되는 시대이다.

정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침체를 벗겨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들의 의지를 북돋고, 소득분배를 평준화하도록 하는 노력을 해줘야 한다.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확실히 해서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교육도 제대로 해야 하고, 사회기반시설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제대로 안 하면 경제는 불균형 불안전 불건전하게 되고, 사회는 몰락하게 된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사항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추상적인 이야기지만 유능한 정부를 만들어내는 일이다. 모든 나라가 직면한 최대의 과제이다.

중국은 1978년 12월 이후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자유시장을 경험해본 적이 없었는데도 별다른 시행착오 없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냥 발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도 기구도 바꾸어가면서 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의 첫 번째 원동력은 국가의 리더십이 좋았다. 모두 제 역할을 다해왔다. 두 번째 원동력은 리더십이 만들어낸 비전과 전략이 시대와 맞았다. 개방 개혁 경제특구를 만들어 동북해안으로 확장시키는 등 하나를 성공시키고 또 다른 것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냈다. 지금은 중국 국토를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양상이다.

세 번째 원동력은 국민이다. 국민들이 참을성이 있고 정부를 믿는다. 이런 것들이 경제발전의 요인이 되었다. 2001년 WTO에 가입한 것도, 3대 대표론도 영단이라고 본다. 후진타오의 과학적 발전도 그렇고, 후안강 교수와 같은 수많은 학자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두뇌와 지식, 전망이 들어간 것이다.

문제는 30년간 고도로 발전해왔는데 미국과 비슷한 양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소득분배가 나빠지고 정부가 게을러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것을 고쳐야만 제대로 나아갈 수 있다. 중국 정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12차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정부가 실행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그렇다면 중국이 패권국을 지향할까? 지향해서도 안 되고, 지향하지도 않을 것이다. 중국은 조공을 많이 받아왔지만 패권을 경험해본 적도 없고, 남을 정복해서 식민지로 만들고 시스템과 사상을 강요하는 제국을 가져본 적이 없다. 그렇게 되면 주변 나라에 대해서 불편한 일들이 생길 것이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재현**

환경경영

지구환경 재난 극복과 인류의 미래

<발제1> 럭 나가자(Luc Gnacadja) UNCCD 사무총장



자연자본인 토양이 전 세계적으로 수난을 당하고 있다. 토양의 고갈과 가뭄이 인류에게 중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이미 물과 생산 가능한 토지 등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사례들을 목격했다. 내부적 연계를 고려하지 않은 물-식량-에너지 결합 전략은 결국 원치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에 지속가능한 대지 관리에 민간부문의 고무적이고 대표적인 투자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중국 기업이 광산을 위한 장비들을 이동하기 위해서 모래언덕 해체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둘째, 과테말라의 시멘트 회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략의 일부로서 숲 가꾸기를 진행했었다. 이러한 사례들이 주는 공통점으로 비즈니스는 필수이고, 유한한 천연자원을 보전하고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면적에 해당하는 땅이 매년 사막화와 가뭄으로 사라지고 있다. 손실된 대지는 20만 톤의 식량을 경작할 수 있는 규모이다. 2007년 호주의 가뭄, 최근 러시아에서 있었던 가뭄과 홍수 사이클을 보면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여주는 냉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식량부족은 점차적으로 예견될 것이며, 자원의 성장을 위한 경쟁이 치

열해질 것이다. 이러한 변화가 농업 관련 비즈니스에만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 토지의 고갈은 훨씬 광범위한 영향을 줄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로 인해서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물론 항공 반도체 제조업 등 산업계는 78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상황과 동시에 거대한 기회가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전 세계적으로 재생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900ha에 달하는 불모지가 있다. 인간이 접촉하지 않은 자원이 점차적으로 생산적이고 우수한 자원으로 탈바꿈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가? 첫째, 여러분들의 사업을 위한 DLDD(사막화, 토지황폐, 가뭄) 위협을 고려해 토지 등의 천연자본을 관리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전략 구현을 요구한다. 둘째, 토지와 토양에 대한 생태계 시스템 피해보고, 측정, 연구를 요구한다. 셋째, 여러분들은 DLDD 기업 사회적 책임 계획(기술 이전 등)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넷째, 계약자 및 협력업체에 의해서 DLDD 정책이 자연스럽게 전해질 수 있어야 한다. 다섯 째, 'UNCCD 지속가능한 대지 관리 비즈니스포럼'에 가입하기를 권한다.

2011년, UNCCD 10회 컨퍼런스가 경남 창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때 창원에서 'UNCCD 지속가능한 대지 관리 비즈니스포럼'이 발족하게 된다. 이 포럼은 비즈니스에 있어서 DLDD 토지의 비즈니스에 대한 환경 영향을 관리하고, 지역사회와 기업 간의 상호이익을 가져다 줄 SLM 인증과 건조 지역에서 새로운 기회를 강화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민간 부문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는 토양과 토지 황폐화 해결을 위한 UNCCD 프로세스에서 비즈니스 커뮤니티의 의견을 환영한다. UNCCD에서 'Green Economy'는 토지와 대지 같은 자연자본이 건강해지고, 자손을 위해 안전하게 가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리더들이 다음 세대를 위한 사항들을 포함시킬 것이라 확신한다. 이는 우리가 오직 함께일 때 효과적으로 보전할 수 있다. 유한한 천연자원을 지킬 수 있도록 UNCCD 컨퍼런스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

〈발제2〉 이돈구 산림청 청장



1950~1960년대 대한민국은 사막이나 다름없었지만, 지금은 푸른 금수강산으로 변하고 있다. 산림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면, 이를 공익적 가치라고 해서 대기를 정화하는 것, 토양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을 모두 계산해서 1년에 100조 원이라는 자산이 나온다. 이처럼 산림의 가치는 어마어마하다.

현재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국내 식물자원이 7,000여 종이고, 그중에 식물자원이 4,500종인데, 신약자원으로 알려져 있는 것만 2,100종으로 무궁무진하다. 산림은 유엔이 인정하는 유일한 탄소흡수원이다. 우리나라는 2022년까지 온실가스 30%를 감축한다고 이미 발표했고, 앞으로 산림탄소를 통해서 기업의 부담을 감축시키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 기업이 해외조림을 하거나 우리나라 숲 가꾸기를 하는데 있어 도움을 준다면 탄소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려고 한다.

문국현 전 유한킴벌리 대표는 지난 1983년부터 ‘우리강산 푸르게’ 캠페인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를 시작으로 많은 기업들이 산림을 통해서 환경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다. SK에서 울산대공원을 만들었고, 대전시에서 대전시 숲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에서 녹색댐 건설운동을 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 차원에서 몽골과 중국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기업일수록 소비자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려면 나무를 키우고 숲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강화해야 한다.

사람과 자동차를 비교한 책이 있는데,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만 숲이 아프면 갈 곳이 없다고 한다. 우리 모든 CEO들이 먼저 토양을 사랑하고, 숲을 사랑해주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발제3〉 문국현 뉴패러다임 인스티튜트 대표



지난 40년 동안 세계적으로 환경에 관한 가장 큰 모임을 보면, 1971년 스톡홀름 선언을 만들어냈던 유엔인간환경회의가 시작이었고, 이를 계기로 지금 유엔 기구 중에서 가장 큰 유엔환경기구가 탄생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아는 1992년에 유엔환경개발회의가 리우에서 열렸다. 처음 회의가 개최되고 40년이 흐른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행사인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모임이 한국에서 개최된다. 리우에서 열린 유엔환경개발회의가 20년을 거쳐 다시 브라질에서 열리게 되는데, 이 회의의 당사국 총회를 창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 총회에는 2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생명토지상을 최초로 만드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유엔이 비즈니스포럼을 최초로 만드는 것이다.

요즈음 외국인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이미지가 뭐냐고 물으면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라고 대답한다. 이런 반 총장이 유엔에서 마음껏 활동하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반 총장이 전 세계에 약속했던 세 가지 컨벤션인 기후변화, 생물종다양성, 사막화방지협약 중 가장 미진한 사막화방지협약을 기후변화 이상으로 끌어올려주면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2차 5년 동안의 임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반 총장이 세계에서 인정받고 찬사 받는 만큼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국제적 협력의 대상이 되는 기회도 높아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세계의 모든 나라가 역점을 두고 노력해야 하는 것이 환경이다. 올해 창원에서 열리는 UNCCD 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길 기대한다. 과거 전 세계로부터 도움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이제 인류가 직면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작은 일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를 지닌다. 보다 많은 CEO들이 지구가 지속가능한 좋은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김재민**

나가이 카즈유키(永井和之) 일본 주오대 총장 /
곤노 유리(今野由梨) 일본 생활과학연구소, 다이얼서비스(주) 대표

대토론회1

동아시아경제시대의 준비와 한국

〈발제1〉 나가이 카즈유키(永井和之) 일본 주오대 총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아시아시대’의 경제협력을 위해서는 확고한 철학이 있어야 한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Give and Take’와 ‘Win-Win’의 관계를 뛰어 넘을 수 있는 철학이 필요하다.

동일본 대지진은 일본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다. 그런데 최근 언론에서 동일본 대지진과 1755년 11월 1일 일어난 포르투갈 리스본의 대지진을 자주 비교하고 있다. 언론이 두 나라의 지진을 비교하는 것은 일본이 포르투갈과 같은 운명의 길을 걷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다. 포르투갈은 당시 세계 GDP 3위 국가였지만 대지진 후 경제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쇠약해졌다. 그로부터 256년이 지난 지금 포르투갈은 재정파탄의 위기에 놓여 있다.

과연 일본은 포르투갈과 같은 운명의 길을 걸을까? 현재 일본은 중국에 밀려 세계 3위 국가가 되었고, 버블경제 파탄 이후 ‘잃어버린 20년’으로부터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이번 지진으로 일본의 제조업은 생산 장애를 겪고 있고, 후쿠시마 원전 문제로 인근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것은 과거사 문제로 얽혀있는 한

국, 중국, 대만 등 아시아의 이웃나라들이 가장 먼저 지원의 손길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일본은 한국,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원을 정중히 받아들이고, 문화적 이웃사랑의 뜻을 지닌 세계관으로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제기되는 것이 ‘아시아적 DNA를 가진 문화공동체’ 확립이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의 자본주의 정착과 그 이전 시대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동아시아 경제발전을 위한 한중일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적인 것이 아시아의 경제발전과 교육이다. 1950~1960년대 자본주의가 뿌리내리지 못했던 것은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자본주의가 발달한 일본은 영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것이 원동력이 되어 일본의 성장은 지속됐다. 1950년대 일본의 국민소득은 필리핀보다 못했지만 1990년대에는 필리핀의 30배를 넘어섰다.

한국 역시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의 교육개혁을 바탕으로 경제발전을 이루었고, 중국도 1978년 덩소평의 교육개혁을 시작으로 경제발전의 초석을 다졌다. 한국과 중국 모두 당시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 국가보다 못한 국민소득을 올렸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각각 30배 이상의 격차로 앞서가게 되었다. 한중일 모두 이러한 성장의 배경에는 교육이 있었다.

해외 유학생 숫자에 있어서도 일본은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에도 뒤처지고 있다. 이러한 기초에서 뒤지면서 한국과 중국은 부상하는 반면 일본은 ‘세계의 진화로부터 남겨져버린 곳’으로 갈라파고스화되어 가고 있다.

중요한 것은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최근 동아시아 국가의 GDP를 보면 1980년대 세계 GDP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4%였다. 그러던 것이 2000년 28%로 올라갔다. 화학제품의 67%를 동아시아가 점유하고 있고, 그 중 60%가 중국이다.

그러나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산업의 중심이 될 '지식'과 '창조형 산업'의 비중을 늘려 나가야 한다. 그러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각 국가가 국경을 넘어 글로벌화와 새로운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

일본 격언 중에 '세 명이 모이면 문수(文殊)의 지혜가 생긴다'는 말이 있다. 평범한 사람도 세 명이 모이면 부처의 지혜가 생긴다는 뜻이다. 이렇듯 한국, 중국, 일본 세 나라가 모이면 새로운 산업의 창조가 가능하다. 결국 3국은 한층 더 심화된 공동의 연구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3국의 공동연구가 오래 되면 결국 같은 팀의 연구결과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이질성이다. 이질성이 없으면 지속성도 불가능하다. 동아시아 3국이 동일성을 중요시하면서 문수의 지혜를 펼치는 것과 동시에 각각의 이질성을 함께 추구하면서 3국의 지속적인 이노베이션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발제2〉 곤노 유리(今野由梨) 일본 생활과학연구소 / 다이얼서비스(주) 대표



지금 일본에서는 '예상 밖'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걸 두고 하는 말인데, 동일본 대지진과 그에 따른 원전 사고를 두고 매스컴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대지진이 가져다 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고도성장을 거쳐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경제적 풍요로움과 정신적 풍요로움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일본 본래의 민족성이 경제발전으로 모두가 부자가 되면서 사라지기 시작했다.

고도성장을 이루는 동안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핵가족'이 진전

되었다. 핵가족화되면서 '육아 노이로제'라는 말이 생겨났고, 육아 노이로제에 걸린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사회체계가 변화하면 여러 측면에서 마음에 모가 생기고, 그것이 사회문제를 유발시킨다. 그런 와중에 이번 대지진이 일어난 것이다. 어느 면으로 보아도 심각한 일이다. 그러나 생각을 달리해 보면, 이번 일이 그렇게 나쁘기만 한 일일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일본에 없었던 그 무엇인가가 땅을 뚫고 올라와 '빛'을 보내온 것일 수도 있다. 나는 기아에 허덕이던 세대지만 지금의 아이들은 돈도 물건도 음식도 넘쳐나는 세상을 살고 있다. '아깝다'라는 말을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이다.

그런데 조금씩 변화가 생기고 있다. 지금까지 노인들의 손을 만져본 적도 없던 아이들이 피난소를 찾아가 할머니 할아버지의 다리와 어깨를 주물러 준다. 건망지계만 보이던 젊은이들도 스스로 용돈을 모아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자신들도 피해를 입었지만 자기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도와주는 것이다.

결국 이번 지진이 일본사회에 꼭 나쁜 영향만 끼쳤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으로 인해 중요한 무엇인가를 놓치고 전력질주해온 일본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다.

또한 그동안 기술을 인정받지 못해 힘들어하던 벤처기업들도 이번 지진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구체적으로 원전 인근 지역 아이들의 체내 방사능을 연구하고 실험한 결과 3개월 만에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었다. 인체 내 방사능은 물론 재해지역 오페수 등의 방사능을 제거하는 방법도 알아냈다. 이 모든 것을 벤처기업들의 실험과 도움으로 이룰 수 있었다. 이 과정을 모두 데이터화시켜서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러한 벤처기업의 기술력은 중국에서도 크게 평가받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에 기술을 이전해주는 조건으로 하나의 약속을 부탁했다. 일본의 이런 기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실수와 실패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며, 경제발전 과정에서 엄청난 공해와 수질오염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 수많은 인명피해도 불러왔다. 중국은 그러한 일본의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달라는 것이 내 부탁이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선 기술을 공유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거듭해 나간다면 새로운 과학기술과 경제발전도 이룰 것이다. 다만 20세기의 과오를 거듭하지 말라는 큰 깨달음을 동일본 대지진이 전해줬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토론회2

자연자본주의와 생명자본주의의 신성장 동력 : 환경경영의 메가트렌드

〈발제〉 김영호 유한대학 총장



현재의 자본주의는 병들고 지쳤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자본주의로 넘어가는 진통기, 과도기에 와 있다. 과도기는 가장 아프고 혼란스러우며 위험하다. 새로운 자본주의로서 가장 주목되는 것이 자연자본주의(Natural Capitalism)이다. 지금 세계경제는 괴물과도 같다. 자연환경 위에서 실물생

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물경제가 있고 그 위에 금융경제가 자리하고 있다. 하루 동안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돈이 3조 8천억 달러에 달한다. 하지만 물건은 350~450억 달러가 거래되고 있다. 97대 3의 비율로 금융이 비대하다.

반대로 가장 바탕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환경은 너무나 취약하다. 자연환경을 1이라고 하면 실물경제의 비중은 2.5, 금융경제의 비율은 97.5 정도가 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격으로 금융이 실물을 좌지우지한다. 세계경제는 세계금융자본주의와 산업자본의 실물경제에 짓눌려 자연환경이 지속가능하지 않는 형편에 있는 모습이다.

현재 거의 모든 실물경제의 생산이 과잉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는 호경기가 있을 틈이 없다. 제각각 다 위험하지만 이것이 서로 영킨 결합체는 더욱 위험하다. 그러나 지금, 금융과 실물이 위태로운데 자연환경을 생각할 여유가 없다, 천천히 생각하지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고, 세계의 많은 기업들의 입장이다. 반면 자연환경이 무너져가는데 금융경제, 실물경제만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강해지고 있다.

지금 자연은 죽었다. 침묵과 신음을 넘어 빙사상태에 빠져있는 것이 현재 자연의 모습이다. 그 많던 참새, 제비, 뱀은 모두 어디로 갔을까? 아인슈타인은 벌이 죽고 나면 인간이 죽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지금

북극에 북극곰이 사라지고 있다. 문제는 북극에 곰들이 사라지면 그 다음은 인간이 사라질 차례라는 것이다.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위기의식은 가져야 한다. 위기의식을 가져야만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온다. 위기가 바로 새로운 기회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이자 새로운 산업, 새로운 경제가 시작되는 순간의 조짐을 말해준다.

16세기를 전후한 르네상스는 인간 재발견의 르네상스였지만 지금 필요한 르네상스는 자연의 재발견이다. 널리 자연에게 이익을 주게 하는 것이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자연자원을 공짜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해왔다. 그리고 그 위에 인간이 가공한 것만 자본의 논리를 적용했다. 이제는 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게 해야 한다.

자연자원의 가치는 참으로 크다. 이것이 주는 가능성과 서비스는 자본이 제품을 만들어 제품이 인간에게 주는 서비스보다 더 크다. 그 점을 적극적, 세부적, 부분적, 구체적으로 살리고 탐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자연자본주의의 핵심이고, 자연에 투자하는 것이 자연자본주의이다. 이제 새롭게 자연자본주의로 나아가자.

〈토론1〉 이만의 前 환경부 장관



로하스(Lifestyles Of Health And Sustainability)는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생각하는 생활방식이다. 앞으로 우리가 바꾸어 나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건강은 나를 중심으로 생명을 중심으로 본 것이고, 지속가능성은 나만 살고 우리나라만 사는 것, 인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온 지구가 자연

과 함께 미래를 향해서 생존할 수 있도록 사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고 생활한다면 녹색사회는 가능하다는 것이 로하스이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적 에너지, 정책이나 프로그램 또는 비즈니스가 따라주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지금까지 20세기적 패러다임으로는 자연을 활용해 우리가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생산 유통 소비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의 경제 또는 비즈니스로 여겼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연자원을 소모하거나 생산 유통 소비과정에서 자연자원에 역행하거나 해를 끼치는 공해를 유발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그와 같은 사고가 선진국에서 이미 기후변화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따라오는 중진국, 후진국들이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자연을 활용하게 되면 인류사회는 생존 가능성을 놓치게 되고 암울한 미래를 예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자원도 살리고 경제, 생활, 문화도 발전시킬 수 있는 윈윈 방식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것이 녹색성장(Green Growth)이다.

기후는 이미 변화되었다. 변화된 기후에 우리가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건강하게 살아야 될 것이고, 자연을 더 이상 파괴하지 않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않도록 즉, 멸종되지 않도록 지키며, 세계적으로 모범을 보이는 한국을 지향해나가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적응이 가장 중요하다.

적응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지구 환경변화의 원인을 초래한 온실가스를 줄이자고 하는 것이 선택될 수밖에 없다. 자연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거나 연료 활용의 기술적 혁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는 등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을 지원해주고, 시민들이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생활혁신을 촉진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구 환경변화는 지금까지 인류문명을 발전시켜오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되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온 인류가 자연과 인간이 공생할 수 있도록, 후세도 자연의 혜택을 보면서 기존의 여러 가치들을 유지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바꾸고 절제하고 창안하고 협력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제 앞서가는 나라로서 우리의 지혜와 노력과 경험과 성과를 온 세계와 함께 공유해야 한다. 변화를 초래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나 약간의 불편을 견뎌야 하는 측면도 있지만 선진국 국민다운 의식을 가지고 세계사회의 미래를 의식하면서 선도해 나가야 한다.

이것이 녹색성장이며 우리가 말하는 자연자본주의이다. 자연자본주의는 소셜 캐피탈리즘이 온전할 때 가능하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따뜻함이 흐르고 약속을 지키고 서로를 존중하고 더불어 사는데 있어서 기회의 번이나 마찰력이 적은 그린코리아가 되었을 때 가능해진다.

〈토론2〉 장태평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생명자본주의의 개념 및 필요성을 말하기 전에 생명산업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생명산업은 옛날식 농수산업이다. 지금의 농업은 4번째 농업혁명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과거 3차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농업혁명은 과학기술에서 생산성만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제는 소재산업으로, 생명산

업으로 넘어가고 있고, 이것이 바로 4차 농업혁명이다. 이제 농업의 개념을 바꾸어야 한다. 농업은 제조업이며 소재산업이고 발전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기초산업이다.

특정 영양소를 함유하는 농산물을 만드는 것을 기능성농업, 분자농업이라고 한다. 특정물질을 직접 배양한 뒤 인공 장기, 인공 고막, 바이오케미컬 소재, 유전자변형 복제기술, 바이오센서 등으로 활용되는 첨단산업으로 농업과 어업이 완전히 다른 한 단계 변신을 하고 있다. 우리의 농업이나 수산업은 이제 바이오산업, 바이오생명산업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그러면 왜 생명자본주의가 필요한가? 생명산업은 발전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철학이 필요하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는 생명의 변형, 복제, 심지어는 생명을 창조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철학, 방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생명자원을 훼손할 가능성, 생명질서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생명자본주의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생명자본주의는 앞으로 우리의 과제이다.

지금 세계는 자연자본주의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제까지 자연을 값어치 없게 써왔다. 이제는 제대로 값을 매겨야 한다. 이것은 기회비용이기에 후세가 이것을 부담하게 된 것이다. 과거의 환경오염과 자연과 파괴를 복원시키기 위해 우리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계란을 얻어 건강한 닭으로 기르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품질 좋은 계란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자연자본주의이다. 생명자본주의도 마찬가지다. 여러 가지 강조점이나 범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자연자본주의와 궤를 같이 한다. 우리의 자연은 생명을 통해 아름다워지고 확대 발전되기 때문이다. **▶▶▶**

인문학특강1

비움과 채움 그리고 나눔



인류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공감’이라는 것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부여된 후천적 본능에 가깝다고 한다. 원시사회부터 인류가 진화하는 데는 생존의 법칙들이 크게 작용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야기’이다. 문화인류학자들이 말하기를 이야기가 가진 어떤 효능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인류가 놓치지 않고 갖고 왔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공감하는 능력이다.

어렸을 적 ‘햇님달님’ 동화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무서워한다. 무서워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엄마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는 것이다. 나중에 호랑이가 오누이를 쫓아올 때 굉장히 두려워하다가 호랑이의 손아귀를 벗어나 햇님달님이 되었을 때 안도하는 것 역시 아이들이 오누이의 입장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이야기가 가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감정이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가 이야기를 이토록 끈질기게 간직해온 이유이기도 하다.

법무부 교화위원으로서 교도소에 출입하면서 느낀 것은 교도소는 문학의 보고들이 많은 곳이고, 시대의 시사점이 보이는 곳이라는 점이다. 사형수라는 어떤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인생을 단면으로 잘라봄으로써 시대와 역사가 그곳에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것을 느낀다.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 잔인한 사람들의 특징은 심리학적으로 보면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그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무감각이다. 이 사람들은 타인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오직 자신의 감각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감각한 상태를 즐겼고, 어린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울부짖을 때조차 그렇게 잔인하게 살인할 수 있었던 이유도 살인에 무감각했기 때문이다.

교도소 수감자들과 이야기하면서 느낀 것은 그들이 우리 주위 사람들과 공통점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 사회의 계층적 골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옛날 우리는 빈부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의 삶이 서로 투명하게 들여다보였다. 때문에 가난하건 부자건 아픔과 애환이 있다는 것을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다. 돈의 가치가 모든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피부로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마치 울타리를 치듯이 부자들과 가난한 자, 배운 자들과 배우지 못한 자들이 나누어지면서 서로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 골은 점점 더 깊어지고 아무도 이 사이를 중재하지 않는다.

요즘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런 것에서부터 계속 발현되고 있고, 앞으로는 더 심각해져서 노사문제는 더 심해질 것이고, ‘문지마 살인’도 더 많이 일어날 것이며, 사회가 더 나빠질 것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어렸을 때 서로의 세계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교육은 책을 권해주는 것, 책이 아니라면 영화를 권해주는 것, 영화가 아니라면 애니메이션이나 연극 등 어떤 캐릭터에 감정이입을 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살아보고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아이들이 충분히 감정이입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지원해주고, 그러한 산업에 대해 조금이라도 봉사하고 권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혜택 받은 지식인으로서 우리가 사회에 해야 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가난한 청소년들에게 좀 더 많은 문화적 혜택을 주는 것과, 공부밖에 몰라서 어쩌면 이기주의자로 성장하고 있을지 모르는 엘리트들에게 한번쯤 다른 측면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세상을 바꾸는 일이 될 것이다. **KHDI**

인문학특강2

질주하는 사회, 성찰하는 삶



법정스님은 꽃들을 보면서 이 꽃들이 왜 이렇게 예쁜지, 이 꽃을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아름다워지고 들뜨고 기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내면에 꽃다운 요소가 깃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해마다 피는 꽃을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것인지 직접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셨다.

고은 시인은 한 송이 꽃을 보고 이런 시를 썼다.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이게 이 시의 전문이다. 똑같이 피어있는 꽃인데, 올라갈 때는 왜 안보였을까? 힘들게 올라가니까, 목표만 생각하면서 올라가니까 안 보이는 것이다. 그런데 내려올 때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서 보이는 것이다. 삶의 속도를 늦추니까 보이는 것이다.

오늘 이 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퇴근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순간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 돌아와야 한다. 순간순간 마음의 속도를 늦춰야 한다. 그래야 꽃이 꽃으로 보이고, 사람이 사람으로 보인다.

이생진 시인은 벌레 먹은 나뭇잎을 보고 이런 시를 지었다. '나뭇잎이 벌레 먹어서 예쁘다 귀족의 손처럼 상처 하나 없이 매끈한 것은 어쩐지 베풀 줄 모르는 손 같아서 밭다 떡갈나무 앞에 벌레 구멍이 뚫려서 그 구멍으로 하늘이 보이는 것은 예쁘다. 상처가 나서 예쁘다는 것이 잘못된 인 줄 안다 그러나 남을 먹어가며 살았다는 흔적은 별처럼 아름답다' 보통 우리는 나뭇잎이든 채소잎이든 벌레 먹은 것을 보면 버려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시인은 예쁘다고 했다. 남을 먹어가며 살았다는 흔적이기 때문이다. 똑같은 것을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데, 가능하면 예쁘게 고맙게 바라보는 눈, 이것이 시인의 눈이라고 생각한다.

안도현 시인은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서 연탄재를 이렇게 소개한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시인은 연탄재를 쓰레기라고 보지 않는다.

시인은 연탄이 연탄재가 되어가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한다. 연탄재가 되는 시간동안 우리는 방이 따뜻해졌고, 그 연탄으로 물을 끓였다. 너

도 네 삶을 다 태워서 남을 따뜻하게 해준 시간이 있었느냐고 시인은 묻는다.

자기 자신을 다 던져서 남에게 뜨거운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을까? 바로 우리 어머니다. 우리 세대의 어머니들이 자기 자신을 다 태워서 재가 되는 삶을 사셨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자기 자신을 다 태워서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 사무엘 올만의 '청춘'이란 시는 그의 나이 78세에 쓴 작품이다. 작가는 그의 나이 80이 되어도 청춘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 시를 썼다. 작가는 늙는다는 것에 대해 주름살이 늘어날 때 늙는 것이 아니라 자신감을 잃는 순간부터 늙는다고 했다. 자신감을 가지고 있으면 청춘이라는 것이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보려고 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들으려 하고, 종소리, 새소리가 들리면 잠시 걸음을 멈춰 그 소리를 들으려 하고, 가슴 벅찬 장면을 만나면 벅찬 가슴을 누를 수 없어 감동으로 떨리는 그런 순간을 맞으려고 하고, 불쌍한 것을 보면 눈물이 나고, 의롭지 않은 것을 보면 주먹을 쥐게 하는 마음이 살아 있어야 진정 살아있는 것이다. 죽는 그 순간까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좋은 시를 먼저 직원들에게 권하는 CEO들이 되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청춘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김미**



인재경영

글로벌시대의 '인재혁명'을 말한다



한류, 스마트폰의 공통점은 비록 하드웨어는 우리 것이지만 소프트웨어는 외국 것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현재 한국의 한계를 나타낸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 이 공계적인 의미 이상으로 인문계를 비롯한 사회 전체적인 기술을 가진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야만 한다.

오늘날 기업은 어제의 인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많은 사교육비를 들여 인재를 양성해도 어제의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면 이것은 명백한 낭비이다. 또한 어제의 기업에는 내일의 인재가 오지 않는다. 기업의 리더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

인재의 개념이 잘못되어 있으면 교육에 대한 많은 투자를 낭비하게 된다. 1920년대 캘리포니아에 살던 1500명의 영재들을 대상으로 90년째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있다. 어린 시절의 영재들 중 누가 성공을 하는지에 관한 연구이다. 아직 연구가 끝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는 IQ나 EQ로 영재들의 성공여부를 설명할 수 없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다중지능이다. 미발견된 재능을 잠재적 영재들로부터 이끌어내야 한다. 결국 똑똑한 새로운 인재를 발견하는 것보다 이미 보유한 직원들의 잠재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글로벌시대의 인재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실력을 보유해야 한다. 첫째, 전문성이다. 전문지식의 보유 유무를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식 이외에 전문성의 핵심 요소인 자발성, 사고력, 판단력 등을 포함한다. 정보의 홍수라고 표현되는 이 시대에서 일컫는 전문성은 평생학습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둘째, 창의성이다. 글로벌 인재는 새로운 일을 개척하거나 같은 일이라도 새로운 방법으로 풀어갈 줄 아는 사람이다. 창의성은 '앞서가는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필수요소이며, '일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으로 리더십의 핵심이다. 발명과 혁신의 차이점은 발명한 새로운 것의 적용 여부이다. 즉, 창의성은 독창성 이외에도 적절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창의성은 독창성에 집중되어 있다.

셋째, 인성이다. 고도로 발전한 사회에서는 다양한 능력과 지식을 지닌 이들의 팀워크와 네트워크의 중요성이 극대화된다. 인성은 '남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이며 오랜 학습의 결과로 이뤄진다. 인성의 여러 요소 중에서 진실성과 도덕성은 인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창의적 인재를 위해 리더는 새로운 사고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인재에 관한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에 걸맞은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창의성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는 것이다. 대개 직원들은 창의성의 핵심인 호기심을 발휘하기 어렵다. 보통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에서는 본인의 역량을 발휘하는 방법이 아닌 기존 체계에 적응하는 법을 가르친다. 그리고 본인의 업무에 투입되면 질문하는 것을 허락받지 못한다. 호기심의 외부표출 방법인 질문을 계속 하면 결국 기존체계에 대한 반항으로 몰아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여유와 실수를 허용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3M이라는 회사는 미네소타의 M, 광산업과 제조업의 각 M을 합쳐 3M이라는 이름을 지었다. 3M은 업무시간의 15%를 자유시간으로 허락한다. 보통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나중에 여유 있을 때 생각해보리라'하면 그 여유는 다시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3M은 15%의 시간에 생각한 일을 추진해 실패해도 아무런 추궁을 하지 않는다. 결국 15% 룰의 결과는 대대적인 혁신을 이루었고,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포스트잇'이다. 이후 3M의 약자가 'mistake, magic, money'로 바뀌었다. 실수를 허용했더니 마법이 일어나 돈을 벌었다는 의미가 되었다.

창의력은 모두가 가치관을 공유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즉, 살아가는 방식이다.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리지만 만 명의 사람이 한 명의 천재를 존재하게 한다. 단순 경쟁이 아닌 서로를 허락하고 더불어 살아가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KHDI**

건강강좌

성공노화를 위한 성인병관리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가 새로운 사회적 위기로 부상하고 있다. 고령화로 인해 2030년에는 23%의 인구가 65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10명의 젊은이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는 구조지만 2030년에는 4명의 젊은이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하게 된다.

보험의 경우 80세 이후 보장되는 보험이 거의 없다.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0세인데 건강하게 사는 평균나이는 71세이다. 요컨대 9년간은 병으로 고통 받다가 죽는다는 의미이다. 결국 암 아니면 성인병으로 고통 받는다. 급기야 노인들의 행복지수가 급감하면서 노인 자살율의 증가로 이어진다. 우리가 미리 건강을 관리해야 하는 이유이다.

흔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담배, 술 등이 혈관성치매의 큰 원인이다. 이 5가지 원인은 연관성이 크다. 담배와 술이 과하면 당뇨가 발병하고, 이는 고혈압과 고지혈증으로 이어진다. 이 요소들의 연관 고리를 끊고 성인병 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인간의 몸은 당과 중성지방을 에너지로 움직인다. 당보다 중성지방이 보다 강력한 에너지로 우리 몸은 중성지방을 선호하지만 뇌는 당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식사 후 2시간까지 당을 사용하고 이후로는 중성지방을 사용한다.

식사를 마치면 우리 몸에는 인슐린이 분비되어서 중성지방의 사용을 억제하고 당을 사용하게 된다. 그런데 인슐린 분비에 문제가 생기면 식사여부와 상관없이 중성지방을 사용하게 되어 당은 높아지고, 남은 당이 소변으로 나오거나 핏속에 머무르게 되는데 이것을 당뇨병이라고 한다.

인간의 뱃살은 손에 잡히는 피하지방과 피하지방 내부의 내장지방으로 구분된다. 피하지방은 몸의 맵시 상 문제가 될 수 있으나 건강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 성인병과 관계된 뱃살은 바로 내장지방이다. 사실 내장지방 자체는 굶주림에 대비해 미리 에너지를 비축하는 용도지만 과도한 내장지방은 성인병을 유발한다.

인간은 보통 4~5시간 간격으로 식사를 한다. 그러나 저녁과 아침 사이

에는 약 12시간의 공복기가 있다.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 당은 체내에서 2시간 정도 존재하는데, 공복 시에는 뇌를 위해 간이 지방을 원료로 하여 당을 생산한다. 이 때 내장지방이 과도하게 많으면 당의 소모가 적어져 체내에 당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간이 당을 생성하고 당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한다. 비만, 중성지방, 지방간, 당 수치 등을 각각으로 보면 병이라 할 수 있으나 이들 중 단 하나라도 이상을 일으키면 바로 당뇨의 발병이 임박했음을 의미한다.

식사 후 75%의 당은 허벅지에서 분해된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중단되고 결국 허벅지는 기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이를 먹을수록 뱃살관리가 중요해진다. 특히 여성은 폐경기 이후 지방을 내장지방이 아닌 둔부쪽 피하지방으로 이동시키는 여성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 등 소위 '죽음의 4중주'라 불리는 병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런 성인병을 해결하기 위한 키워드가 바로 뱃살이다. 결론은 식이요법과 운동을 해야 한다. 뱃살을 줄이고 허벅지를 강화하여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담배, 술을 조절해야 한다. 우선 술을 끊고 소식하면서 칼로리 흡수를 줄여야 한다. 특히 건강이 안 좋을 때는 소식해야 한다. 저녁식사는 7시 이전으로 마치고 공복으로 잠자리에 들어야 하며, 커피는 아침과 점심식사 이후에 마시는 것이 좋다. 고기를 피할 필요는 없지만 고기의 기름기는 바로 중성지방이 되기 때문에 기름기가 적은 고기를 섭취하고, 고기와 함께 섬유소를 많이 섭취해야 한다.

운동의 경우 성인 남성이 한 시간 동안 러닝머신을 달라도 300kcal를 소모하기 어렵다. 그런데 머핀 케이크 하나가 450kcal, 술 한 잔이 150kcal인 점을 고려하면 운동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식이요법이다. 흡수한 칼로리를 많이 소비하기 위해 운동으로 허벅지 외에 여타 근육을 발달시켜야 하지만 운동을 과신하지 말고 우선 식이요법을 신경 써야 한다.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스트레스는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분비를 부추겨 당을 올리기 때문이다. **KNN**

부동산전략

창조자산 부동산시장의 전망과 투자전략



부동산의 자산관리는 장기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한다. 최소 3~10년을 바라봐야 한다. 점점 고령화시대로 발전하는데, 이는 주택시장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통상 금리의 1.5배 수익을 적정기대 수익이라고 한다. 이 외에 플러스알파 요인으로 지가상승이 있을 수 있다.

최근 통계를 살펴보면 부자들의 60~80%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주택은 노후 자산관리의 중심축이다. 주택의 수익성 여부에 따라서 올해 안에는 자산교체가 꼭 필요하다. 올해가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다.

추천할 수 있는 부동산으로는 도심권 다가구와 역세권이다. 또한 임대수익의 원룸, 투룸 등이 각광받을 것이다. 현재 1인 가구의 비중이 23%에 이르고, 소가족 중심이기 때문이다. 다시금 '인 서울'로 돌아올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서울과 수도권외의 분리 즉, 탈동기화외도 연관이 있다.

그리고 주상복합보다는 아파트가 아직은 가치가 있다. 그 다음은 빌딩이다. 서울 신사동 가로수길, 청담동 등이 변화가 많았던 곳이다. 서울의 부동산은 크게 경기를 따질 필요가 없는데, 3~4곳이 큰 변화를 겪었다.

우리나라 부동산은 과거에 너무 많이 올랐고, 거품이 많다. 그리고 소득대비 집값이 높다. 하지만 오해가 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 Price to Income Ratio)이 객관성은 있지만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아파트와 단독주택을 같이 취급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아파트가 많다.

또 중요한 것이 부동산 사이클이다. 8.29대책 이후 부동산 가격이 내렸다. 이후 올 3월까지 올랐다. 그리고 다시 내렸다가 지금 또 오르고 있다. 이런 단기 흐름을 보면 변동성이 너무 커서 혼란이 온다.

부동산은 단·중·장기 사이클이 존재하는데, 언론에서는 너무 단기만 따진다. 장기 사이클로 봐야 한다. 2013년까지 상승할 것이다. 수급과

전체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단기 사이클은 30개월, 중기 사이클은 40~50개월을 주기로 한다. 주식과 부동산은 9~12개월의 차를 두고 반복되며, 이 사이클은 실물경기기에 이르고 선·후행 관계를 따른다.

장기 사이클은 별집모양으로 7~12년이 주기이다. 서울 강남의 경우 긴 상승과 짧은 하락이 계속됐다. 부산의 경우 60%가 그대로이다. 지역의 차별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전세와 매매는 전세가 먼저 오르고 매매가 나중에 오른다. 지금이 바로 이 시점이다. 그리고 꺼질 때는 동반 상승했다가 동반 하락한다.

부동산은 위치와 가치가 가격을 결정한다. 부동산은 지역중심이고 입지 가치가 중요하다. 서울은 한강변과 역세권, 뉴타운을 공략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는 고정돼 있지만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계속 변화한다. 또한 선택할 때 인구증가, 소득증가, 행정 통합이 일어나지 않는 지역은 절대 선택하면 안 된다.

입지 가치와 토지 가치도 중요하다. 고급주상복합은 올해 내로 처분하고 교체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대지주분이 아파트에 비해 적기 때문이다. 보통 건물가격 중에서 토지 가치가 70%를 차지한다. 건물의 수명은 1~5년까지는 가격이 상승하고, 5~10년은 그대로 유지되다가 10~15년 사이에는 가격이 떨어진다.

최근에는 하향여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즉, 도심회귀현상으로 강남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소득, 교육, 직업수준이 높은 사람이 지역에 많이 들어오면 가격은 오르게 되는 것이다. 2013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은 수급상승에 의해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이다. 그리고 2020년까지 수도권은 집값이 떨어지기 어렵다. 그러나 203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세를 보일 전망이다. **김재민**

우리들의 인생 나침반

인생이란 '나그네 길'이다. '나그네'란 자기 고향을 떠나 타향에 머무르거나 여행 중에 있는 '길손'을 의미한다. '고향'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면 '타향'은 고향을 떠나 임시로 머물거나 지나가는 곳이다.

그렇다면 인간의 고향은 어디일까? 인류 역사상 나그네로 유명한 사람은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원조 아브라함이다. '네 고향 갈데아 우르를 떠나 젓과 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 그는 아내 사라와 함께 고향을 떠났다.

나그네로서 인생을 안전하게 여행하려면 잠시 머물거나 지나는 곳의 안내서나 때로는 나침반이 필요하다. 끝이 보이지 않는 머나먼 나그네 길을 걸어가면서 외롭고 괴로운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도 한다. 향토병이나 전염병에 걸려 죽음에 이르는 위기에 직면하기도 한다. 지칠 대로 지쳐 쓰러져 좌절을 겪기도 한다. 이때 필요한 게 구원의 손길이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필요한 것이다.

〈사막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의 저자 스티브 도나휴가 최근 〈인생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이라는 책을 출간해 화제다. 전작에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사하라사막'에 빗대어 설명했고, 〈인생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에서는 인생을 '바다거북이'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다.

20여 년 전 캐나다 밴쿠버 근처의 '연어의 고장'으로 유명한 빅토리아 섬에 간 적이 있다. 그곳 하천을 출발해 태평양 바다를 넘어 대양을 유영하다가 성어가 되어 다시 그들이 떠난 하천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일생을 마친 연어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우리네 인생도 연어처럼 귀소본능에 따라 떠난 고향으로 귀향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나침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고 있듯이 인간의 내면에 있는 나침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고 있다고 스티브 도나휴는 말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강하게 끌려가고 있음을 느끼곤 한다. 그것이 결혼생활이든지 직업이나 그 외의 어떤 것에 도취돼 행복감을 누렸던 것이든지 나침반이 끌어준 힘이라는 것이다. 스티브 도나휴가 제안하고 있는 '인생을 건너는 여섯 가지 방법'을 내 나름대로 재미미해보고자 한다.

첫째, 익숙한 삶의 동지에서 탈출하라. '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결별'이다. 아브라함처럼 부모 형제 친구 등 전통문화와 친숙한 환경을 떠나 새로운 세계로 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친숙한 관계와 사회적 통념, 자신의 신념, 이데올로기로부터의 탈출을 권유한다.

둘째, 심장에 반응하라. 무조건 이끌리는 대로 가라는 감성적 이야기가 아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음성에 귀 기울여 그것에 열정을 쏟고 도전해보라는 것이다.

셋째,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여행하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재능과 특성이 있다. 그 재능과 특성을 파악하고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유행의 쓰나미에 쓸려 헤매고 있는 청년실업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다.

넷째,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 공동묘지에 가면 망자들이 아무 말 없이 누워 있다. 인간 만사의 변화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

다섯째, 인생의 1%만이라도 깊이 잠수하는 시간을 가져라. 바쁜 일과 중에서도 독서하는 시간, 명상 또는 기도하는 시간, 일기를 쓰거나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글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한 달에 7시간이면 충분하니 인내심을 키우고 겸손해지는 법을 배우는 노력을 해보자.

여섯째, 나침반에 따라 여행을 마치고 자기 내면의 집으로 꼭 돌아오라. 빅토리아 섬의 연어들이 귀소본능에 따라 어릴 적에 떠났던 하천으로 돌아와 알을 낳고 죽는 것처럼 자기 마음의 고향으로 돌아와야 한다.

지구에는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 인류 역사상 태어나 일생을 살고 간 어떠한 사람도 똑같이 생김 이는 아무도 없다. 여기에 '개인'이라는 인간존재의 의미가 있다. 바다거북이처럼 고향과 같은 인생의 바다를 여행하며 살아온 우리들은 자기 존재의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나침반의 소리에 귀 기울여 고향으로 귀향 안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음을 믿자. 남이 아직 건지 않은 '길 없는 길'을 걸어 본향으로 돌아가자. **김재민**



섬김의 리더십으로 직장사역을 실천하는 CLA 2기

크리스천 오피니언 리더 48명, 19주 과정 마쳐

지난 3월 8일, 이동원 지구촌교회 목사의 개강예배와 이번 최고위 과정의 지향성인 '예수의 섬김 리더십'을 주제로 한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강연으로 개강한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2기가 7월 12일 팔래스호텔에서 과정 수료자와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수료식을 가졌다.

매주 화요일 직장 19주간의 일정 속에 복잡한 사회에서 기업을 일으키며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기도 하고, 직장사역의 길을 가면서 원칙을 지키는 삶을 다시 한 번 새롭게 되뇌기도 했다. 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 정태영 현대카드 사장, 이만의 환경부 장관, 양병무 재능교육 사장,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외국인진료소장, 박선규 문화관광체육부 차관, 신갈렘 열방 네트워크 대표, 송자명지학원 이사장 등 매주 크리스천을 대표하는 정부차로, CEO 등 사회 곳곳에서 각각의 역할로 사역을 맡고 있는 강사들의 섬김 리더십과 살아온 인생에서의 경험을 신앙과 함께 나누었다.

'찾아가는 서번트 리더십' 첫 번째는 기독교사역의 롤모델인 소망교도소를 찾아가 처음부터 기독교도소의 비전으로 범죄자도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새생명으로 잉태되는 과정을 주관한 분들에게 감동의 선물을 받고 돌아왔다.

두 번째 시간은 검찰청을 방문해 김준규 총장과 원우들이 함께 리더로서의 고뇌를 이야기하는 허심탄회한 시간을 가졌고, 세 번째 시간은 주최기관 CBS를 방문해 방송으로 선교사역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현장을 살펴보고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CLA 2기는 졸업여행을 겸해 제주 올레길 중에서도 처음 문을 연 성지순례길을 탐방하는 뜻깊은 시간도 가졌다. 제주는 4.3사건 등 역사적 이유로 기독교가 정착하기에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곳에서 아름다운 목회를 이어가는 교회들을 만날 수 있었다. 제주 최초의 교회, 예배하는 가운데 순교하신 목사님과 십자가가 있던 교회에서는 원우들의 가슴도 먹먹해질 수밖에 없었다. 민경중 CBS 제주본부장의 멋진 해설과 함께 했던 1박 2일은 신앙적 리더십을 키우는 성찰의 시간으로써 충분했다.

넉 달간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종강식은 이원우 연세이원우치과 원장, 송년영 소프라노의 멋진 하모니로 축하를 하고, 김용구 에프앤피엔지 대표, 배청천 AMPLUS 자산개발 상무, 박찬규 삼우 회장, 헤럴드의 조동호 회장, 구연숙 부사장 부부 등 5명은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하여 전체 교육생을 대표해 진솔한 소감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이후 이러한 크리스천 리더의 정신을 만들어가는 과정 3기에도 많은 분들의 참여를 바란다. **김재미**



19주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료한 CLA 2기생들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남궁요숙 알파색채 대표



박삼규 (사)녹색기술연합 이사장



박은주 메리트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이수구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장태평 前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CBS 와 인간개발연구원이 함께 하는 **3rd**
Christian Leaders Academy



**크리스천 CEO,
 서번트 리더십으로 세상을 바꾸다**

“크리스천 리더들이 깨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는 21세기 경영계의 화두인
 예수의 섬김 리더십을 함께 공부하고 실천하는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지난 35년간 CEO들의 새벽을 깨워 온 인간개발연구원의 교육시스템과 강사진,
 그리고 한국 최고의 전통과 권위를 갖고 있는 CBS가
 국내 최고의 고위경영자과정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CBS사장 이재 천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장만기

Christian Leaders Academy Speaker



강우현
 남이섬 사장



곽영훈
 사립과환경그룹 회장



김수경
 대체의학연구원 원장



김승규
 아가페재단 운영위원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



김창욱
 퍼포먼스스트레이닝연구소 소장



박종원
 한국재보험 사장



송길원
 하이패밀리 대표(목사)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



신갈램
 열방네트워크 대표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이매용
 국가브랜드강화위원회 위원장



이장로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이재포
 CBS i 사장



이지성
 [리딩으로 리더하라] 작가



이채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외국인진료소장



장태평
 미래농수산실천포럼 회장



정성진
 일산 광성교회 목사



조서환
 세라젠헬스&뷰티 사장



최일도
 다일공동체 대표(목사)

* 프로그램은 사정상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Christian Leaders Academy Program

- **교육기간** : 2011년 9월 27일 ~ 2012년 2월 7일 (16주 과정, 봉사활동 4회)
- **교육장소** : 팔래스호텔 12층 스카이블룸(반포동)
- **주 최** : CBS, 인간개발연구원
- **모집대상** : 크리스천 CEO, 오피니언 리더
- **교육문의** : 장소영 실장 TEL 070-8670-8435
- **참가신청** : 김민하 사원 TEL 070-8670-8462 / heehee810@nate.com
- **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5-901-588813 / 예금주 (재)CBS
- **신청마감** : 2011년 9월 20일
- **홈페이지** : www.cla.or.kr



[회원 소식]

■ **장선호 서울시의사회 대회협력이사(피노키오 이 비인후과 원장)**는 (새선한봉사센터 주관으로 6월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 6.25 61주년을 기념해 6.25전쟁 참전국인 에디오피아에 의료봉사를 다녀왔다. 이 기간 동안 봉사단은 총 1,800명 3,163건을 치료하고 돌아왔다.



■ **정덕구 NEAR재단 이사장**은 지난 7월 11일 <NEAR Report : 동아시아시대의 준비>를 출간하고 출판 기념회를 가졌다. 이 책은 <신삼국지, 중국화 파고 속의 한국>, <양극화·고령화 속의 한국 - 제2의 일본 되나>, <미·중 사이에서 고뇌하는 한국의 외교 안보 - 연미화중(聯美和中)으로 본다>등 전 3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 **이덕수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는 채소값 수급안정을 위해 지난 7월 18일 오후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과 대관령면의 고랭지배추 재배현장을 방문했다. 이 대표는 앞으로 고랭지배추의 안정적인 경작을 위한 농업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수급 현황 점검을 통한 소비자 물가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 **최광식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청 개청 50주년과 국외문화재팀 발족을 기념하고 국외에 나가 있는 우리 문화재 환수 및 활용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포럼과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7월 19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문화재 환수 국제포럼'은 국내외 문화재환수 전문가, 민간단체 등을 초청해 진행했으며, 20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문화재 환수 정책토론회'는 국외소재 문화재관련 전문가, 환수 활동가 등이 참여해 국외소재 문화재 4대 정책 분야에 대한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을 벌였다.



■ **홍석우 前 중소기업청장**이 지난 7월 22일 코트라 신임 사장에 취임했다. 홍 사장은 취임 후 일본 도요타와 함께 7월 29-30일 양일간 도요타 본사에서 한국 부품기업 34개사가 참가하는 '자동차 부품 전시상담회'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자동차 부품 전 분야에 걸쳐 한국 기업별로 마련된 전시부스에 총 58건의 제품을 도요타 및 계열사에 제안하는 기회를 가졌다.



■ 임덕규 한·인도협회 회장월간 디플로

머시 회장은 지난 7월 26일, 방한 중인 프라티바 파틸(Pratibha PATIL) 인도대통령을 만나 양국 우호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반기문 UN 사무총장 재선을 인도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연임에 성공한 반기문 유엔 사

무총장은 한국대학교육협의 회회장 김영길 한동대 총장가 공동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방문했다. 대교협은 8월 9-11일 서울에서 유엔과 함께 "변화를 위한 새로운 파트너-유엔과 세계의 교육공동체"를 주제로 '서울 UNA(United Nations Academic Impact) 포럼'을 개최했다.



■ 대한노인회(회장 이십)와 사단법인 미래문화(회장

한복디자이너 이영희)가 공동 주최한 한복 패션쇼 '바람의웃, 독도를 품다'가 KBS 1TV 광복절 특집으로 지난 8월 16일, 밤 11시 40분에 방송되었다.



■ 전순표 (주)세스코 회장은 국민 보

건복지 향상 기여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로 지난 8월 19일 동국대에서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번 박사 학위 수여는 동 대학 농학박사 학위에 이은 것으로 전 회장은 대한민국 방제산업의 선진화와 세계화를 앞장서서 이끌었으며, 국내외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공익 구현에 크게 공헌했고, 장학금 조성 등 미래 인재육성을 통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자했던 그의 노력과 공헌을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 대성산업(회장 김영대)이 지은

주상복합건물 '디큐브시티'가 지난 8월 26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에 문을 열었다. '디큐브 시티'는 백화점을 비롯해 호텔, 아파트, 사무실, 아트센터 등을 아우르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구성됐다. 개막 행사로 디큐브 아트센터에서는 30일부터 6개월간 뮤지컬 '맘마미아'를 공연할 예정이다.



■ **EBM통합의학센터(원장 허봉수)**는 한국웰니스재단과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 웰니스 코칭 전문가 창업과정을 오픈했다. 본 과정을 모두 이수하면 생체활성건강법을 지도하는 건강코칭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다. 과정에 대한 문의는 EBM통합의학센터(주인학부사장, Tel:1588-5018, www.ebmkorea.com)로 하면 된다.



■ **이베이코리아사장 박주만**은 G마켓과 옥션의 합병을 승인받아 합병 법인 '이베이코리아'를 정식으로 출범시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 회사 합병건을 심사한 결과,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조건 없이 승인했으며, 이로써 업계 1, 2위인 G마켓과 옥션은 합병을 통해 인터넷 오픈마켓 부문 시장점유율 72%를 기록하게 되었다.



■ **공한수 Big Dream & Success 사장**은 경춘선 철 개통을 축하하기 위한 9개 역사대성리역 - 배양역 시화전에 '꽃같은', '인생 참 모습' 등 두 편의 시를 전시했다. 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을 기념하는 '평창 올림픽'이라는 노래를 작사했다. 이 노래에는 우리나라가 유구한 문화국민임을 자랑스럽게 표현하는 노랫말이 담겨있다.



■ **봄온커뮤니케이션(대표 성연미)**은 장애인에게도 방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 아래 방송을 꿈꾸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전액 무상 지원하는 장애인 아나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3기까지 교육이 진행됐으며, 모집을 통해 9월부터 4기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 **류병덕 물고기마을 회장**은 일본의 비단잉어 수출거상 Matuda와 비단잉어 양식에 대한 특허 및 브랜드 공유에 대한 기술제휴 MOU, 비단잉어 전량 매수를 통한 해외수출 독점계약을 체결했다.



■ **김종훈 한미글로벌(구. 한미파슨스) 회장**은 미국 엔지니어링 전문 업체 오택(OTAK) 인수를 계기로 캐나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향후 중동과 아프리카, 중국 등지로 영역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2015년까지 수주 1조, 매출 8000억 원과 영업이익 1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은 2011년 세계지식포럼 (2011 World Knowledge Forum)에 초청 연사로 초대됐다. "지식 생산성과 가치창조를 위한 리더십"이라는 주제 Session을 맡아 기존의 지식 경영 개념을 뛰어 넘어 지식생산성(Knowledge Productivity)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지식혁명'에 대해 토론하게 된다.



■ **신달자 시인(숙명여대 객원교수)**은 이 땅의 여성들에게 들려주는 사랑, 꿈, 행복에 관한 메시지를 담은 <여자를 위한 인생 10강>을 출간했다. 이 책은 저자가 그동안 강연과 상담을 통해 여성들에게 전했던 이야기 중 핵심만을 추린 열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여성들에게 열 번의 실패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껏 도전하고, 외로움과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고 즐기며, 행복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이어령 전 문화부장관**과 강인숙 건국대 명예교수의 장녀인 이민아 변호사가 신앙 간증집 <땅끝의 아이들> [시냇가에심은나무 펴냄]을 출간했다. 무신론자인 아버지를 신앙으로 이끌기도 한 이민아 변호사는 이 책에서 이혼과 암 투병, 실명, 첫아이의 사망 등 여러 시련에서 신앙심을 키운 이야기를 진솔하게 소개하고 있다



■ **대한민국서화원로총연합회(회장 손경식)**는 제6회 전시회를 9월 4일 일요일 오후 3시까지 서울시립미술관 경희궁 제1전시실(Tel. 02-723-0455/02-723-2431)에서 개최한다. 회원들의 관람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 **최재형 장학회(회장 김창승 / 사무총장 황광석)**는 대륙의 관문이자 2012년 APEC정상회의 개최예정지인 연해주에서 한민족의 위대한 CEO 최재형 선생의 발자취를 따라잡으며, 유라시아대륙으로 웅비하는 한민족의 꿈을 그려보는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 일시: 2011년 9월 16일(금)-9월 19일(월) (3박 4일간)
- 참가경비: 165만 원(2인1실 기준) - 비자, 항공, 식사, 숙박, 교통, 가이드비용 포함
- 문의: 황광석 사무총장 (Tel. 1688-7050, 010-6222-1945)

■ **가재산 조인스HR 대표이사**는 한국형 성과주의 인사전략, ABC 인재경영을 다룬 책 <어떻게 최고의 인재들로 회사를 채울 것인가?>(쌤앤파커스)를 출간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똑같은 조직에서 일하지만 능력은 천차만별인 인재들을 어떻게 배치하고 육성하며 관리해야 조직 전체의 성과가 안정적으로 올라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편 조인스HR은 성과주의 인사제도 정착을 위한 급여전문가 양성과정 8기를 개최한다. 본 과정은 급여관리에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담당자의 실무지식 강화와 인사 노무분야에 이르는 배경 이해로 '급여전문가'로서 담당자의 능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 일시: 2011년 10월 12일(수)-10월 13일(목)
10:00-18:00
-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아트컬리지 3 (4F)
- 문의: Tel. 02-890-0815, 0848

[창립기념일을 축하드립니다]

회사명	이름/직함	창립기념일
유신산업(주)	김동철 고문	9월 1일
KCTC	이윤수 부회장	9월 1일
창영전자	박세근 사장	9월 2일
글리프스	박준서 대표	9월 4일
동익건설(주)	박성래 회장	9월 20일
(주)다산	윤영상 회장	10월 1일
(주)성부트레이딩	차진영 사장	10월 1일
(주)성신신소재	임병문 회장	10월 1일
(주)유니온	김명식 부사장	10월 10일
한신전선(주)	김영재 회장	10월 10일
흥안실업(주)	탁재용 회장	10월 15일
광동제약(주)	최수부 회장	10월 16일
도암엔지니어링(주)	이용원 부사장	10월 19일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 **이덕수 농협중앙회 농업경제 대표이사**의 차남 상훈군의 결혼식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 일시: 2011년 9월 16일(금) 오후 6시
- 장소: AW컨벤션센터(구, 하림각) 2층 그랜드볼룸(Tel. 02-396-7000)

[이전하였습니다]

- **공한수 Big Dream & Success 사장**은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 새주소: 서울시 광진구 중곡2동 116-9 금강빌딩 501호
 - 전화: 전과 동일(02-774-3230, 720-8897)
 - 장소: 전과 동일(02-757-3230)
- **최만식(주)로터스힐 회장**은 사무실을 이전했습니다.
 - 새주소: 부산 해운대구 우동 트림포월드 센텀2 B동 501호
 - 전화: 전과 동일(051-851-8250)
 - 장소: 전과 동일(051-866-5172)

[소모임 소식]

- **YCF(회장 황광석/총무 안정욱)** 7월 모임은 지난 19일, 경기도 가평군 바하마 리조트에서 물살을 가르는 수상스키를 배우며 스트레스를 날리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 **MS클럽 수료자 전체모임**

CE0미디어스피치 과정 수료자 전체 모임이 지난 8월 24일, 3기 회장인 심기석 세일이엔에스 대표이사의 후원으로 세일아트홀에서 열렸다. 이번 모임에는 과정 수료자 30여 명이 참석하여 각 가수별 교류 및 스피치 콘테스트 대회를 개최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 **이종기업동우회 1그룹(회장 이윤수/총무 고지석)**

8월 모임(제289차)은 지난 29일에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모임에서 회원들의 만장일치로 이윤수 KCTC 부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신임 회장 선출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는 이종기업동우회 1그룹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 **인목회(회장 차진영/총무 박이락)** 9월 정기모임은 섭생연구의 권위자인 허봉수 EBM통합의학센터 원장의 특강과 건강식 만찬이 준비된 부모모임으로 진행된다. 이번 인목회 모임에 관심 있는 회원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일시: 2011년 9월 1일(목) 오후 6시 30분
 - 장소: EBM통합의학센터 (Tel. 1588-5018)
 - 참석여부: 총무 박이락 (C.P. 010-5218-5146)

■ **골프모임 인경회(회장 이응국 / 총무 이종원)** 9월 모임은 아래와 같이 개최된다.

- 일시: 2011년 9월 16일(금) 오후 12시 35분 티오프
- 장소: 한양 CC "신코스"
- 대상: 인경회 정회원 및 인간개발연구원 회원
- 참석여부: 총무 이종원(C.P. 010-5306-8587)

■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회장 김창승 / 총무 이계옥)** 9월 모임은 아래와 같이 개최된다.

- 일시: 2011년 9월 19일(월) 오후 6시 30분
- 장소: 문학의 집 서울 산림문화관 2층홀
- 문의: 정용달 팀장 (Tel. 02-445-1949)

■ **화목회(회장 황석희 / 총무 홍승국)** 9월 모임은 본원의 회원이신 엄기영 전 MBC 사장을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화목회 회원 및 본원 회원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일시: 2011년 9월 20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명동로얄호텔 21층
- 참석통보: 총무 홍승국(C.P. 010-5305-3378)

■ **다락회(회장 정태익 / 총무 이종원)** 9월 모임은 아래와 같이 개최된다.

- 일시: 2011년 9월 20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2층 그랑카페
- 참석여부: 총무 이종원 (C.P. 010-5306-8587)

[연구원소식]

■ **본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위한 'Facebook' 오픈**

본원은 연구원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소통하기 위한 창구로 인간개발연구원 페이스북(www.facebook.com/khdi.org)을 오픈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본원과 육군본부 선진육군아카데미 협약식 체결**

본원이 주관하고, 육군본부가 주최하는 '선진육군아카데미' 협약식이 지난 7월 20일 육군본부에서 열렸다. 제124회 선진육군아카데미와 함께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이영훈 서울대 교수가 연사로 초청되어 대한민국 현대사의 올바른 시각에 대해 강연했다. 군부대의 지식과 학습 공간 창조를 위한 '문화지식병영사업' 일환으로 2006년부터 시작된 선진육군아카데미는 군 리더들의 지식 함양과 지위관급 인사의 리더십 함양 등 군선진화에 큰 공헌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사회통합을 위한 '소통아카데미' 개설**

본원은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위원장 송석구)와 함께 우리사회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 선진국에 진입하는 초석을 다지기 위한 '소통아카데미'를 개설한다. 9월 21일(수)부터 10월 19일(수)까지 주1회 5회차로 진행될 소통아카데미 1기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인들로부터 다양한 내용의 강연을 듣는 인문학강좌 형태로 진행될 예정이다. 1기 강사 진으로는 조용현 조선일보 칼럼니스트, 강지원 변호사, 김후란 시인,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 김창옥 퍼포먼스 트레이닝연구소 대표 등이 참여한다. 소통아카데미는 대한민국 국민(성인)이면 사전신청에 의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강연 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TV채널을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소통아카데미 2기는 11월 2일-30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다.

- 일시: 2011년 9월 21일-10월 19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9시 30분
- 장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스튜디오(동승동 소재)
- 문의: 정용달 팀장(Tel. 02-445-1946)

■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 3기 개강**

인간개발연구원과 CBS가 공동으로 크리스천 리더들의 신앙적 리더십을 일깨우고, 예수의 섬김리더십을 공부하고 실천하기 위해 개설한 '크리스천 리더스 아카데미(CLA) 1기, 2기'가 성공적으로 운영됐다. 우리 사회를 바꾸어 나가는 영향력 있는 서번트 리더가 되기 원하는 크리스천 리더들의 3기 과정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일시: 2011년 9월 27일-2012년 2월 7일
매주 화요일, 오후 6시 30분-9시
- 장소: 팔래스호텔 12층 스카이블룸(반포동)
- 주최: CBS, 인간개발연구원
- 문의: 장소영 실장 (Tel. 070-8670-8435)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회원사제품 협찬**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참석자를 위하여 김석문 신일팔글라스 대표이사는 '도르만스 커피'를, 홍승국 에버그린MST 대표이사는 '손목시계'를 매주 선물로 협찬해주고 있어 회원들의 높은 호응을 이 끌고 있다. 협찬해주시는 김석문 대표, 홍승국 대표께 감사드리며, 본원에서는 협찬 내용을 회원사에 홍보하고 있다. 자사 제품 소개에 관심 있으신 회원은 본원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 문의처: 경영자교육팀 민선아 차장(Tel. 02-445-1948)



2011년 아카데미 성공적 정착

평생학습 열기, 한여름 무더위도 잊고 전국으로 이어져

〈교육컨설팅소식〉

■ 한여름 무더위도 떨쳐낸 아카데미 열기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보다 비소식이 더 많았던 이번 여름, 전국 지방자치아카데미의 열기는 연이은 폭우도 식

히지 못했다. 현재 서울시 종로구와 송파구를 비롯하여 충청권의 제천과 부여, 영남권의 군위와 청도, 호남권의 무안과 고흥 등 약 50여 개 지자체와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기타 다수의 지자체와 활발한 교육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구 달서구에서는 김영길 한동대 총장을 모시고 “글로벌 역량과 창의적 인성”이란 주제로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의 시간을 가졌다. 경북 경주시에서는 이시형 한국자연의학종합연구원장을 모시고 “자연의학과 생활건강”이라는 주제로 무더운 여름철 자칫 유지하기 힘든 건강상태를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고, 경남 함안군에서는 KBS-TV 비타민의 패널로 유명한 강재현 서울백병원 가정의학전문의를 모시고 뱃살 관리를 통해 성인병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다.

한편 전남 장성에서는 8월 25일 오다케 요시키 일본 AFLAC 최고고문을 모시고 동일본 대지진 이후의 일본사회의 변화와 미래전망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고, 고흥에서는 박선규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모시고 공정사회구현 등 향후 국정 운영방안에 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 리더십, 변화, 혁신, 자기계발을 위한 기업 및 공공기관 정기교육



기업 정기교육은 리더십을 기본으로 변화와 혁신을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 재능교육 사업 국장워크샵에 이금룡 코글로닷 컴 회장이 “고수는 확신으로 승부한다”라는 주제로 강연했으며, 크루셀텍과 대응제약 경남지역본부에 예영숙 삼성생명 전문가 강사로 나서 “고객은 언제나 떠날 준비를 한다”를 주제로 고객만족경영에 대해 이야기했다.

공공기관 정기교육에서는 JDC와 함께 하고 있는 ‘글로벌아카데미’가 제주, 서귀포시에서 열렸다. 이배용 국가브랜드위원회 위원장은 대한민국 국가브랜드의 위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고, 박재갑 국립중앙의료원장은 지난해에 이어 애플 강연으로 글로벌아카데미 강단에 올라 애플과 흡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우정사업본부의 포스트아카데미에는 홍혜걸 의학전문기자가 건강강좌에 나섰으며, 전남지방우정청 직원특강에 서진규 희망연구소장이 강단에 올라 역경을 극복하고 지금의 자리에 오른 인생성공스토리를 들려줘 직원들의 감동을 자아냈다.

남부대 교직원워크샵에는 이금룡 회장, 송길원 하이패밀리 대표, 김현정 한국에니어그램연구소장, 서두칠 이화글로벌 회장 등이 강사로 참여해 변화와 혁신, 리더십, 가정, 그리고 에니어그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육군본부, 청렴한 육군문화 정착, 전투형 강군 육성에 기여



육군본부는 지난 7월 6일, 김대식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진 육군 아카데미’ 강사로 초청해 군 간부들과 군무원 200여 명을 대상

으로 “공정한 사회, 청렴한 세상”이라는 주제의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따뜻한 한국이 되기 위해서는 소외계층들이 ‘돈’과 ‘빚’이 없어도 공정하게 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육군은 지난달 8일 김상기 육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작전사급 이상 및 육직부대 지휘관과 육본 과장급 이상 간부, 주요부대 감찰관계관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軍 공직기강 확립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최근 군에서 발생한 공직기강 문란과 비리유착 가능성이 높은 시설공사, 납품, 예산분야 등의 부정부패 사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됐다.

향후 육군본부는 법무감찰·헌병·해당 참모부 등 관련 부서와의 밀도 있는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부정부패를 차단하는 현장위주의 예방감찰 활동을 더욱 강화해 전투형 강군 육성에 이바지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컨설팅기관 소식〉

■ 우정사업본부, 새주소의 우편번호 확정·고시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명룡)는 582만 2410건의 '새주소의 우편번호'를 8월 29일 확정·고시했다.

새주소의 우편번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6자리 우편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우편번호가 달라지거나 새롭게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새주소의 우편번호가 확정·고시됨에 따라 우편물을 보낼 때 지번주소를 몰라도 새주소만으로 우편번호를 찾을 수 있게 된다. 또 인터넷 포털사이트, 온라인 쇼핑몰, 기업홈페이지 등에서도 이용고객이 새주소로 주소나 물품배송지 등을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할 때 기초 DB로 활용된다. 이번에 확정된 '새주소의 우편번호'는 인터넷우체국(www.epost.kr)의 '새주소의 우편번호 검색하기' 또는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go.kr)의 '새주소의 우편번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일로도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 JDC, 제6기 대학생 IT봉사단 일주일간 재능기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 변정일)의 'JDC 드림 나눔봉사단'이 8월 19일, 대학생 및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입주기업과 함께 '제6기 대학생 IT봉사단 발대식'을 가졌다.

이번 IT봉사단은 8월 20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제주도내 아동센터 30여 곳을 돌며 고장난 컴퓨터를 정비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데스크탑 컴퓨터 20대를 아동센터에 기증했다. 6화째를 맞은 대학생 IT봉사단은 꾸준한 활동을 통해 효과성과 진정성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는 한편 최근 사회 이슈인 '재능기부'를 실천하고 있어 JDC의 사회공헌활동이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번 활동은 대학생뿐 아니라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IT기업들이 함께 참여해 지역사회에 나눔문화 확산의 계기를 마련했다. 변정일 이사장은 발대식에서 "JDC는 대학생 IT봉사단을 통해 제주 지역사회의 아동들이 마음껏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프라를 제공함으로써 JDC가 지역사회에 꿈을 나누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 구미시, 신성장동력 프로젝트 - 첨단 IT·모바일·의료기기 융합산업 '메카'로 뜬다

구미시(시장 남유진)는 모바일, 디스플레이산업 중심에서 전자의료기기, 광학기기, 탄소섬유, 2차전지, 태양광, 3D융합 등 미래형 산업으로 신



성장동력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구경북 첨단의료단지의 핵심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015년까지 1천 377억 원이 투자될 '전자의료기기 부품소재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을 유치했으며, 올해는 약 400억 원이 투자될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사업'을 유치해 태양전지 산업을 육성지원하며 차세대 기술연구 중심의 미래성장 기반도시로 성장할 계획이다.

■ 보은군, 한국양궁 메카 발돋움



보은군(군수 정상혁)이 대규모 선수들이 참가하는 양궁대회를 잇따라 개최하며 한국양궁의 최적의 전지훈련 및 대회 개최지로 부상하고 있다. 보은군은 8월 26일, 한국실업양궁연맹과 2012년부터 2014까지 연맹회장이 실내양궁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협약식을 가졌다. 이로써 보은군은 IBK기업은행 2011WK여자축구리그, 2011 보은장사 씨름대회, 제22회 한국실업양궁연맹 회장기 대회 등 각종 크고 작은 경기를 개최해, 명실공이 전지훈련 및 최적의 대회개최지로 부상하게 되었다.

■ 수영구, 연극의 바다 '제8회 광대연극제'



지역 예술인들의 연극 축제인 부산 수영구 '제8회 광대연극제'가 8월 12일 개막해 14일까지 3일간 광안리해수욕장 만남의 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연극제에는 개막작 '심청전' 등 7개 작품이 야외무대에 올랐으며, 광안리를 찾는 관광객 등 주민 누구나 무료로 공연을 즐겼다. 특히 개막행사에는 다양한 축하공연이 펼쳐져 시민과 관광객들이 함께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되었다.

■ 원주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원주시는 의회동 주차장 및 노인종합복지관 부지 내에 고유가시대의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총 7억 2천만 원 규모의 이번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연간 1440만 원의 비용 절감과 3.84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를 기대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고유가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친환경 청정에너지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청정에너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설비를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아시아역사(東亞細亞歷史)

왜곡(歪曲)의 시정(是正) 4



무장 이세민(李世民 r.626-49)과 소릉(昭陵) 육준(六駿) 석상 중 621년에 낙양을 공격할 때 출전했던 애마 심로자(颯露紫: 鮮卑말로 진홍색을 의미). 펜실베이니아 대학 박물관



630년에 돌궐(突厥)을 정복하고 천가한 (天可汗)이 된 당 태종 이세민. 돈황화가 (翟家) 220굴 벽화 (642년 축조)

중국 사학자는 당 고조 이연의 부친 이병(昞)이 "100% 한족"이라는 가정하에 당 태종 이세민이 75%의 선비족 DNA를 가졌다고 말한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도 당 고종은 87.5%의 선비(鮮卑)족 DNA를 가진 셈이 된다.



● 홍원탁 교수

칼럼 내용의 근거가 되는 관련 기초 자료와 2차 자료를 검토하고 싶은 독자께서는 <http://www.HongWontack.com>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20년, 조조의 위(220-65) 조정은 각 지방 유력자 중 중정(中正)을 선정하여 해당 군의 유능한 인재를 찾아 9품으로 분류를 하고, 이 순위에 따라 각급 정부 관리를 선발하는 기준으로 삼았다. 중국본토 전체를 통일한 수와 당은 중앙정부가 9품 이상의 지방정부 관리들을 직접 임명하는 방법으로 중앙 집권을 강화했다. 전한-후한 당시의 시험은 효성과 청렴을 중시하는 비정기적 천거-임명 관행을 보완하는 수준이었다. 수 문제 양견은 이 초기 형태의 시험제도(察舉)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해서 정기적으로 한족 관료를 선발-임용했다. 당 역시 시부(詩賦)와 유교 이념 중 통치전략상 특히 효경(孝經)에서 정의하는 '효'를 강조하는 과거 시험제도를 계속했다.

과거 출신 한족이 지방관에서 중앙관리로 진출도 했지만 조정의 고위직은 거의 모두 북위 이래 정복왕조의 지배층인 선비 귀족들이 세습하였으며, 그들은 중앙정부의 고위직을 거의 모두 차지하여 과거(科擧), 음서(蔭叙) 고위 관리 자제의 임용, 천거(薦舉) 등으로 발탁한 한족 협력자 관료들을 지휘 감독했다. 493년에 북위(北魏) 효문제(r.471-99)가 수도를 낙양으로 옮길 때, 황족(帝族) 8개 씨족 10개 성씨, 세습적으로 부락의 대인(大人) 노릇을 하는 36 씨족 92개 성씨가 본관을 하남 낙양으로 정했다. 우문태는 서위/북주를 세울 때 공을 세운 장수들을 종장(宗長)으로 하고, 그 자손들은 관내(關內)를 본관으로 해서 씨족지를 편찬해 공식적으로 관릉(關隴) 귀족집단이 형성되도록 했다. 이들 개국공신 가문 출신들은 수-당 조정의 고위직도 거의 모두 독점했다.

실제 과거를 통해 선발된 관료 비율 자체가 당나라 말기까지 평균 10%를 넘지 못했다. 당 왕조 289년간 한족의 상급관료 진출 필요조건인 진사(進士)시험 급제자 총 수가 6천여 명이었으니, 년 평균 20명 내외에 불과한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진사 시험 합격자 중 상당 수가 중앙의 각종 학교에서 생도의 신분으로 여유 있게 시간을 보낸 하급 선비(鮮卑) 귀족 자제들이었다.

한족 사회에서는 만주-몽골 지역의 비 한족 사회에서와 같이 자타가 공인하는 세습 귀족이라는 존재가 없었다. 사학자들은 정복왕조 고유의 세습귀족은 오히려 도외시 하고, 정복왕조에 발탁되어 지방과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협력자 역할을 수행한 관리들 많이 배출해 온 한족 집안을 '귀족' 가문이라고 부른다. 사학자들이 특히 내세우는 소위 한족 '귀족' 가문이라는 존재는

대대로 정복왕조에 적극 협력하여 중앙과 지방의 관리를 대량 배출한 태행(太行)산맥 동쪽 평원의 최-노-이-정(崔盧李鄭) 등 소위 산둥(山東) 4대 성씨이다. 정관정요(貞觀政要)를 보면 632년에 태종 이세민이 방현령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산둥지방의 네 성씨들에게 무슨 원한을 가진 적이 없다. 허나 그들 집안은 쇠락하여 전혀 관리로 진출한 사람이 없는데도(全無官宦) 옛날의 명성을 내세워 스스로 뽐내기를 좋아하며 사대부라 일컫는다. 그들은 딸을 다른 씨족 사람에게 시집 보낼 때 예물을 많이 바칠 신랑감을 찾으면서 거액의 재물을 요구하는데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흥정하는 모습이라 풍속을 해치고 예의를 문란케 하고 있다. 나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들을 중하게 여기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사대부라면 공을 세워 벼슬이 높아지고 임금을 충성으로 섬겨 칭송을 받아야 한다. 지금의 최-노-이-정 무리들은 오직 먼 선조의 관직을 자랑할 뿐인데 어찌 우리 조정의 귀한 자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 이에 조서를 내려 성씨를 바로 잡기 위해 씨족지를 편찬케 했다. 이세민은 거듭 명했다. "몇 대 이전을 논할 필요 없이 다만 현재 벼슬의 품계와 등급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두고 법칙으로 삼아야 한다."

북위로부터 수-당에 이르기까지 고위관직을 독점했던 선비 귀족과 그 충실한 한족 고위관료 협력자들은 당의 멸망과 함께 소멸되었다. 새로 한족제국을 수립한 송(宋) 지배자들은 도덕적 지탄 대상인 정복왕조 협력자들을 도외시하고 새삼 지주-호족 계층으로부터 순수 한족왕조를 섬긴다는 자부심으로 충만한 새로운 세대의 관료를 선발해 정복왕조 세습귀족을 대체했다. 북송 태종(r.976-97)은 재위 22년간 1만여 명의 진사를 선발했다. 유교 전통을 회복한 한족 송-명 왕조에서는 능력주의가 실현되었지만 요-금-원-청 등 정복왕조에서는 한족 협력자의 하위직 선발-임용과 사머니즘-불교를 숭상하는 개국공신 귀족들에 의한 중앙정부 고위직 세습 현상이 계속되었다. **▶▶▶**

지난 7+8월호 3회 칼럼 내용 중 저자 원고와 달리 鄴公(후공)을 (韓/陸)公으로, "수 문제 양견은 541년에 절간에서 태어나 12살까지 비구니가 키웠다. 양견은 자신을 부처의 현신으로..."라는 구절에서 '은'과 '견'이 누락되어 조판-인쇄된 사실을 밝힙니다.

Sweet Dream in Jeju

햇살, 웃음. 가족, 사랑 에머랄드 빛 바다
그리고 하얀 파도로 지은 아름다운 추억이 있는 곳
롯데호텔제주에는 리조트 그 이상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Special in Lotte Hotel Jeju



프라이빗 **비치라운지**

끝없이 펼쳐진 에머랄드 빛 바다
아름다운 중문 색달해변에 마련된
롯데호텔제주 고객만을 위한 휴식 공간



숲속 바비큐 파티 **캠핑존**

2층 오두막, 캠핑 트레일러,
최고급 텐트, 3가지 타입의 이색 캠핑 존.
바비큐와 숲 속 캠핑의 특별한 추억



핑크빛 세상 **헬로키티 캐릭터 룸**

사랑스러운 헬로키티를 테마로 꾸며진
국내 최초 캐릭터룸.
동화 같은 헬로키티룸에서의 달콤한 하루

이정민의 국민연금 이야기

행복할 수 있도록, 웃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국민연금이 있기에...
꼭 받고, 많이 받고, 물가까지 보장받는 국민연금! 함께할수록 행복지수가 높아집니다.

국민연금 홍보대사 KBS 아나운서 이정민



행복
노후설계
서비스

튼튼한 노후설계, 행복한 100세 인생

전국 140개 행복노후설계센터에서 재무설계와 생활상담,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까운 행복노후설계센터 문의는 “국번없이 1355”

